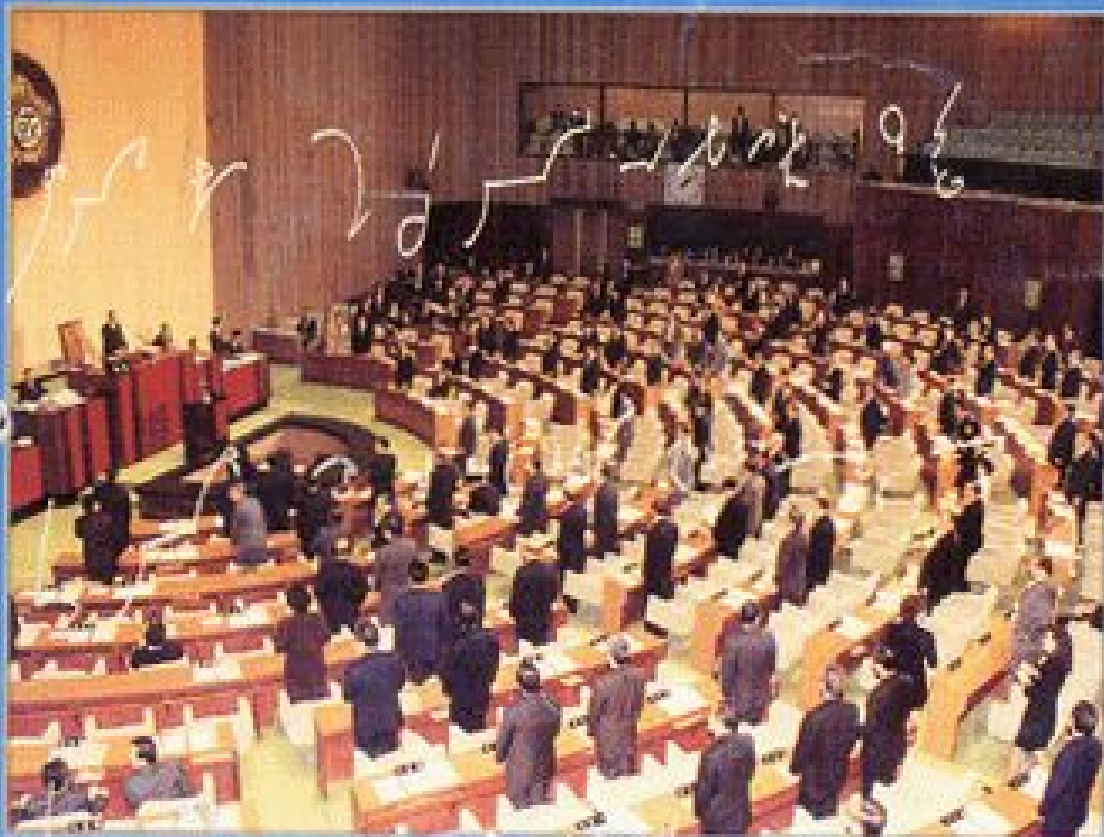


速記界

第 33 號



大韓速記協會

- 격려사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로/문화체육공보위원장
- 대담 원로를 찾아서 속기계의 산증인, 김진기 협회고문
- 인터스테노 인터스테노 세계총회/외국어부
- 인터뷰/박계동 의원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조영기
- 기증
- 미니인터뷰/채강희 서기관 속기인들의 업무지침서
국회회의록 작성편람
- 좌담회 '95 해외국감을 다녀와서
- 지방의회 탐방 대전광역시 의회를 찾아서/조미경
그게 아니라/한동춘
스피드워드에 대하여/정성모
속기사와 컴퓨터/윤태원
- 회원동산 애인 만들기/강지유
- 회원동산 나의 친구/김권중
- 자료 한글바로쓰기
- 회원동정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로



신 경 식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장)

인류는 문자의 발명으로 역사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지식과 지혜는 더욱 축적되었고 또한 역사는 인간 사회의 변천 및 발전과정 등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의 변화된 자취를 기록한 학문으로 인류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AD 1세기경부터 문자사용의 흔적이 보이며 4세기경에 이미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문자 발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민족이 세계 200여 국가 중 몇 안 되는 위대한 문화민족임을 자궁할 수 있는 금자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어떠한 정치적 간섭이나 왕명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한 사초가 있어 후대에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관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며, 오늘날에는 각종 의회의 속기록을 통하여 그 맥을 연면히 이어오고 있음을 볼 때 역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속기인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늘 경쟁이 존재합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게」라는 말들이 대변하듯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구는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더구나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속기」와 「속기인」을 탄생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사의 기록을 위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으로 확산되어 많은 속기인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가 곧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급격한 인원의 증가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은 속기인 스스로 극복해 나아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최첨단과학기술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체연수를 통한 재교육 등 속기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현대는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로 각 방면에서의 전문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능력있는 사람들이 대접 받는 사회로 점차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리 속기인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문인으로서의 속기인들이 능력에 걸맞는 제대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보는 인식제고와 함께 각계각층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써 하루빨리 그와 같은 일들이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보화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이 변화의 물결에 속기인들도 늘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우리 속기인들이 국제무대에서도 국위를 선양하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위스 벨리존나(Bellizona)에서 인터스테노(INTERSTENO : 국제속기연맹) 중앙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우리 속기인들이 더 많이 참석하여 우리 의회 속기계를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서 적극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기인들은 일찍이 대한속기협회를 구성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해왔으나 이제는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발맞추어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전 속기인들의 내재된 발전적인 잠재력을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힘으로 결집해내는 데 진력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많은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1995년의 암영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아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속기인 여러분과 그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또한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속기계의 산 증인, 金鎭基 협회 고문

일시 : 1996년 1월 19일(금)

장소 : 국우회 사무실

대담 : 황인하 이사장

○**황인하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병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김진기선생님께서서는 국회의 산 증인이시며 또한 대한민국 속기계의 중심 원로이신데 속기는 어떻게 배우셨으며 국회사무처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근무하시게 되었는데지요?

○**김진기고문**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속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해방 후에 속기사양성소 생도를 모집한다는 벽보광고를 보고 일파식속기사 양성소 1기생으로 입학한 것이 1946년입니다. 1년반동안 수업하여 1948년에 수료를 했는데 처음에 70명정도가 입학했으나 수료는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5월31일 제헌국회 개원시에 국회속기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때 13명으로 국회속기를 시작했어요. 2년 후인 1950년 6·25 사변 당시에는 정원이 20명으로 증원되었는데 그해 9월28일 서울 수복 후에 보니까 20명 중 행방불명, 사망, 월북, 부역한 사람을 제외하고 8명이 남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속기는 제헌국회 이전에 8·15해방 후 미군 점령하에서 미군정청의 입법자문기관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6년에 구성되어 속기시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말속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말속기를 연구해서 발표할 분들이 더러 있었지만 실용화되지 못하고 해서 일본속기를 하던 여섯 분이 입법의원에 채용이 되



있어요. 이 분들이 일본속기를 이용하여 한국말을 들으면서 머리에서 일본말로 번역해서 속기를 했지요. 이 분들이 이렇게 실무를 하면서 한편으로 속기를 연구를 했는데 속기사가 부족하니까 입법의원 당국과 상의해 가지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견습생을 모집해서 가르쳤지요. 이때는 우리나라 속기가 초창기이고 또 속기사가 귀해서 그런지 봉급이 3,000원인데 속기수당을 100%인 3,000원을 받았어요. 그만큼 우대를 한

것이지요.

■피난국회 속기록 작성 못해

○**이사장** 제헌국회부터 속기를 쪽 해오시다가 제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6·25사변으로 수도가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국회도 같이 남하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김선생님께서 어떻게 피난을 하셨는지 그 피난과정과 피난국회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보좌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고문** 6·25사변으로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인 6월27일에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후퇴여부를 논의한 결과 수도를 사수하자는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직원들은 당연히 피난을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날인 28일 아침에 국회에 나와보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장 등 일부 사람들이 이미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국회도 못 열고 대부분의 직원과 속기사들은 피난을 못 갔지요. 속기사들이 남하를 못해가지고 6월25일부터 9월28일 수복 때까지의 피난국회의 국회속기록은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정사의 기록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큰 블랙가 생긴 것이고 우리 속기계 입장으로서도 대단히 애석하고도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그후 수복이 되어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피난을 간 도강파와 피난을 못한 잔류파로 분류가 되었는데 잔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 복직하는데 점령기간 동안에 부역을 했으나 이런 심사를 했어요. 그 때 속기사들은 잔류한 사람 중 심사에 통과해서 복직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8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1951년 1·4후퇴 때는 조직적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속기사도 전원 부산으로 피난을 갔지요. 그랬다가 53년9월에 다시 서울로 복귀한 것이 2대국회 6·25전후의 사정입니다.

■속기사양성소 설립

○**이사장** 그후 국회내에 속기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속기사 양성과 속기문화의 보급등으로 속기계에 크게 공헌을 하셨는데 속기사양성소의 설립배경과 설립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고문** 국회속기사양성소 전에 1948년에 장기태선생께서 운영하던 일파식 속기사양성소가 있었는데 운영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정원도씨와 장덕근씨 본인 셋이서 그 양성소를 인계해서 2기, 3기를 양성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6·25가 나고 부산에 피난을 가서 보니까 속기사 숫자는 없고 양성기관도 전무한 상태라 속기사양성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가지고 정원도씨하고 들어서 당시 조봉암국회부의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을 짜봐라" 그래서 들어서 상의해서 "1년에 한2,000만원(그 당시 화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조부의장께서 명함을 주시면서 당시 백상 장기영 한국은행 부총재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즉시 200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부의장께서 국회의원들한테 회람을 돌려가지고 200만원을 마련했고 또 정부에 얘기해서 문교부에서 400만원 이래서 8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외부에 양성소를 설립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국회사무총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 박종만사무총장은 문교부차관출신이신데 이것을 무료를 전제로 국회사무처내에서 하되 양성소로 하지 말고 교육법에 의하고등기술학교로 하자 해서 문교부에 고등기술학교 설립허가를 신청을 해서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 53년부터는 정식으로 국회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양성소를 운영하다가 1961년 5·16혁명 때까지 10기생을 양성하고 폐교됐지요.

그 다음에 65년도에 내가 다시 복직을 해서 국회속기사양성소의 재건을 모색하던 중 당시 권효섭 의사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68년 현재의 국회속기사양성소를 재건했습니다. 이때에는 일파식 30명 한 반하고 고려식 30명 한 반 해서 2개 반을 편성, 수업하는 한편 법식개량과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파식과 고려식 양 법식의 교사들로 하여금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여동안 양 법식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의회법식을 창안하여 1969년부터 교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무려 28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 그 후 속기과 직원의 증원과정과 행정직으로 전직할 때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고문 국회속기과는 초기 제헌국회 때 13명으로 시작되어 본회의만 속기하는데도 속기록발간이 20여일 후에나 나올 정도로 업무가 부진했습니다. 2대 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그 당시 위원장께서 속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속기가 시작된 것인데 예산결산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 국정감사 등 업무가 차차 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3대 국회부터는 본회의속기록을 회의 익일 발간으로 해서 업무가 또 늘어났고 5대국회에 와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어 「모든 회의는 속기법에 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국회법에 명시됨으로써 위원회가 모두 속기를 하게 되어서 해마다 업무량이 증가함으로써 자연히 속기사 정원도 해마다 증가해서 1967년에는 속기사 정원이 89명까지 달했었습니다.

이렇게 증원은 되는데 장기 근무직원들이 승진이나 전직의 기회가 없으니까 자연히 불만이 쌓이고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심끝에 속기직에서 행정직렬로 직제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행정직에서 반대가 심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당시 대한속기협회 김용태회장님께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계셨고 또 속기과장 출신이신 유용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속기사 출신 다수가 국회에서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입법심의관 등 고위직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된

하나의 발판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호진사무총장께서 계선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직제를 개정했다고 노발대발하시면서 나 보고 사표를 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 결과 몇 달후인 1978년 4월에 유용규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로 전보되고 나는 공무원연수원으로 전보되어 30년간의 속기업무를 마감하게 되었지요. 30년간 헌정사 기록에 전념한 공을 인정하여 국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훈장을 상신하였는데 사무총장이 삭제를 해서 그 혼한 훈장 하나 못 땀지요.



■참의원 속기과

○**이사장** 앞으로 돌아가서 4·19후의 양원제국회에서 김선생님께서서는 참의원 초대속기과장으로서 근무하시면서의 보람과 참의원 속기과 창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고문** 4·19의거 후에 양원제국회의 구성으로 참의원사무처의 속기과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속기사출신이 행정직과장에 임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본인 뿐이 아니라 속기계의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의원에서 처음에 42명의 신규속기사 모집을 했는데 이 사람들만 가지고 속기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민의원사무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신규모집자 반은 민의원에서 근무하게 하고 반은 민의원의 경험자를 참의원으로 전직하게 해가지고 반씩 교류해서 속기과를 편성했어요. 그 당시에는 편

집계직원도 전부 신인으로 충원되었는데 이것까지 민의원의 협조를 얻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속기과장인 내가 직접 최종확인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지요. 그래서 본회의가 있는 날에는 매일같이 인쇄소에 가서 밤을 새우는 바람에 심지어 집사람은 외도를 하지 않는가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민의원에서는 등사로 프린트인쇄를 해오던 것을 내가 참의원에 가가지고 위원회회의록을 공판타자인쇄로 전환해서 위원회속기록에 활판인쇄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하여튼 9개월 동안의 속기과장생활이었지만 신설기구를 대과없이 마친데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속기협회 발전과정

○**이사장** 그 다음에 속기협회의 설립 및 발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고문** 8·15해방 후인 1946년에 우리나라에는 조선속기학회, 조선속기문화협회, 조선속기사연맹 등등 범식마다 협회를 설립해서 속기협회가 여럿 있었어요. 이것을 1955년에 본인이 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는 각 범식을 전부 통합해서 대한속기학술협회를 창립하고 이것을 57년도에 대한속기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61년 5·16혁명으로 활동이 중지되었지요. 1965년 내가 다시 국회에 복직을 한 그 이듬해인 66년에 대한속기협회를 재창립해서 69년도에 사단법인 인가를 획득했지요.

○**이사장** 최근 어려운 속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면, 사설학원 난립, 허위과대광고, 기계속기 등장 등으로 일부에서 국회속기사양성소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양성소 창립자이신 김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고문** 지금 현재 사설학원이 난립해 있는데 사설학원은 경영상의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설양성기관에 속기사양성을 의존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속기사를 확보하려면 사설양성기관보다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속기가 등장했는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연구발전시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컴퓨터속기가 발전한다고 해서 수필속기가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과 같이 여기 저기 장소를 옮겨가면서 집무를 할 경우에는 컴퓨터속기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발전시키고 아울러 수필속기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소는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직과 복직

○**이사장** 제헌 때부터 국회에 오래 계시면서 국회의 발전과 또 입법활동지원에 계속 봉사하셨는데 5·16혁명과 그 다음에 80년의 5·17, 5·18로 인해서 두 번이나 국회에서 물러나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는데 그 때 상황과 그 뒤 재복직되었을 때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고문** 사실은 6·25 때까지를 합치면 세 번 직장에서 물러났지요.

첫번째는 6·25 때 3개월간 근무를 못했고 그 다음에 5·16군사혁명 때 국회해산으로 나왔다가 4년만에 다시 복직을 하고 또 80년도에 해직되었다가 89년에 복직되었으니까 같은 직장에서 세 번씩 들락날락한 결과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80년의 해직은 5·16 때의 해직과 성격이 다른 것이 5·16 당시에는 전원이 해직되었지만 80년도에는 일부만 분류해서 해직을 시킨 것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불명예스러운 기분이었는데 법률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그래서 87년도에 5공화국이 끝나고 6공화국 들어서 두가지 방식으로 복직투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투쟁 결과로 1989년도 6월에 다시 복직을 했는데, 본인은 정년을 7개월 앞둔 시점이었지만 불명예스러운 해직이었다는 오명을 씻는다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투쟁으로 그 당시 해직된 사람에 대해서 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근무한다」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서 1988년도에 위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80년 해직 때부터 89년5월까지의 모든 임금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해서 1심, 2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정변이나 또 어떠한 사변이 있을 때마다 희생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기 30년간의 이모저모

○**이사장** 국회에 재직하시는 동안 애환이 많으셨을텐데 몇 가지 잊지 못하는 내용이나 또 국회 50년사의 산 증인이시므로 이면사가 많으실텐데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문** 30년 근무 동안의 애환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을 얘기하자면 1949년도에 내가 비공식으로 공보처 촉탁으로 겸직근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공보처에서의 주업무내용은 이승만대통령의 주례 기자회견 속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49년도에 이승만대통령과 장개석총통이 진해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애당초 속기사를 대동하지 않았다가 현지에서 갑자기 속기사를 내려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공보처에서 연락을 해서 그 당시 허 수라는 동료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진해에 갔어요. 그 당시는 해방직후이기 때문에 민항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인이 비행기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대였고 서울에 군용비행장이 여의도 광장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육군항공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항공대장이 후에 공군참모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정열육군 중령이었고 비행기종류는 L-19라고 조종사 뒤에 한 사람만 탑승할 수 있는 연락용비행기였는데 그 비행기 두 대로 속기사 2명을 진해까지 수송을 해서 진해의 해군통제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이승만대통령이 오랜 미국생활을 해서 그런지 우리말이 서툴러서 국제회담장에서 우리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 영어속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
황성수외무부정보국장이 옆에 앉아 조그마한 소리로 특별히 통역을 해주셔서 그것을 받아 속기했지요.

그 다음에는 6·25 나흘 전인 1950년6월19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자회견 내용이 북한괴뢰가 남침을 하려고 일선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기자가 물으니까 대통령이 그 정보를 미국에 알리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정보를 믿지 못하고 그럴 리 없다 하는 이런 문답이 있었고 한편 김삼룡, 이주하라는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38선을 넘어와서 평화협상을 하자, 이런 제의를 한 것을 체포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설득을 해서 이승만대통령에게 전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얘기한 녹음테이프를 신성모국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 가지고 나와서 틀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평화협상을 하자고 두 사람 보내고 실지는 전쟁준비를 하는 북쪽의 이중성으로 봐서 그 당시에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예감을 어느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도에 내가 참의원 속기과장 당시에 하루는 건장한 신사 두 분이 와서 "과장님에 대한 모략투서가 들어왔으니 그 투서한 사람이 누구인지 필적 감정을 와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니까 치안국에서 왔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근무중에 그냥 따라 나갔더니 정문바깥에 나가면서 양쪽 팔을 붙들고 피의자 연행하듯이 가는 것이예요. "왜 이러느냐" 하니깐 그냥 차에 들이밀고 간 곳이 치안국 중앙분실이라는 곳이였어요. 내용 인즉 국회속기록을 간첩한테 주어서 그것이 이북에 넘어가서 반공법에 저촉됐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 속기록은 과거에 제헌국회 때 같이 있던 김모씨가 법률신문사 편집국장이라는 자격으로 국회를 출입해서 속기록을 건네준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간첩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신문을 받았는데 평생 잊지 못할 고초를 겪었어요. 그 때 이틀동안 고문은 안 당했지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깐 억울해서 밥이 안 넘어갔어요. 결국 속기록은 일반에 배포된다는 법적근거를 대고 무사히 나왔습니다. 마는 나와 보니까 당시에 내무차관이 이미 참의원 사무총장과 참의원 의장에게 "참의원사무처의 간첩을 체포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틀동안 이러이러해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했더니 사무총장이 빨리 의장님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해서 의장실에 가니까 그때 운영위원장도 와 있었는데 사실을 얘기했더니 "당신이었느냐?"고 그러면서 무사하니까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1968년도에 최초로 외국속기계를 시찰할 기회가 있어서 일본속기계를 시찰하고 일본의회속기계시찰보고서라는 것을 내가 처음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 외국속기계 시찰을 많이들 갔었지요.

■속기사는 폭넓은 지식이 필요

○**이사장** 명예롭게 은퇴하신 후 현재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국우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대선배로서 현직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충고 등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문** 속기계에 부족한 사람이 선두에 서서 30년동안 속기업무에 종사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으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덕택으로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어 후배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속기업무에 종사하면서 항상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 기록보국이라는 긍지와 속기문화의 개척자 및 보급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관되게 생활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항상 잊지 마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속기사는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속기 초년병 시절의 실패담을 예를 들자면 박종홍교수의 철학강의와 박목월시인의 「시창작법」 강의를 속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속기는 했으나 도저히 번문이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철학과 시창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들을 수 있었으나 뜻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즉 뜻은 모르고 소리만 듣고 썼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속기사는 다방면에 걸친 넓은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식함양에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속기는 일차적으로는 소리나 음을 기록하지만 음에 의존하다 보면 의미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사전에 관련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한데 너무 소리에만 의존해서는 훌륭한 속기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녹음기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사정이 허락된다면 속기경기대회 같은 것을 해서 실력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협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 속기도 50년이 되었으니까 반세기 동안의 속기 역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속기 50년사」 같은 것을 한번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속기사의 기능직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속기는 절대 기능일 수만은 없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동작의 반복행위에 그치는 것이지만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속기는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된 모든 영역에 걸친 폭넓은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전한 속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기능직으로 한 것은 그 발상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장** 끝으로 자녀 분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김고문**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해서 현재 모기업에 취업하고 있고 둘째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양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셋째는 한양대의대를 졸업하고 의학박사학위 취득후 신경외과전문의로 있습니다.

○**이사장** 자녀 분들이 다 성공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계셔서 참 다행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후배들한테 계속 조언을 해주시고 또 장수하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감사합니다.

INTERSTENO 1996년도 중앙위원회 참가신청 안내

세계 속기인들의 모임인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가 스위스 벨린조나(Bellinzona)에서 9월7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도비니다.

세계의 속기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속기인의 국제화를 이룩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또한 한국의 속기를 세계의 속기지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름 사항을 참고하여 뜻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정 : 1996년 9월7일 ~ 14일(7일간)
- 장 소 : 스위스 벨린조나
- 접 수 : 본 협회 외국어부(전화 : 788-2442 김은숙 부장)
- 예상경비 : 1인당 250만원 정도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조 영 기(홍보부장)

1995년 10월 19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중 예금조회표를 들어보이며 '비자금'을 폭로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발언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기폭제가 되었다. 출구를 찾지 못해 소용돌이 치던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역사의 흐름이 박계동 의원의 발언으로 물꼬가 트자 제 방향을 찾게 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언론으로부터 '95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박계동 의원은 맑은 눈과 다정한 미소를 지녔지만 일단 질문에 나서면 차분한 어조로 집요하게 문제를 헤쳐나가는 남다른 열정을 보인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베스트 원을 기록하고 있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박계동 의원을 1995년 12월 28일 742호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만나보았다.

- 비자금 폭로 발언이후 수많은 국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 질문이 제일 어렵네요. 기쁘면서도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4년 동안 그 흔한 당직도 한번 안 맡아 봤는데 어떤 점에서는 당내정치에서 모자라는 것을 그 쪽에서 보충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비자금 폭로로 '과거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995년은 개항 100년, 해방 50년이 되는 해로 특별히 편년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이지요. 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희년(禧年)이라고 할 수 있지요. 빛을 못 झा아 쨍쨍때는 사람들도 희년에는 다 탕감해 주었는데 역사



에도 그런 물줄기가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두웠던 지난 과거를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수 없어요. 그래서 95년도를 우리의 대전환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나 14대 국회는 과거청산에 대한 역사적 과제가 부여된 것이예요. 처음에 김영삼대통령이 과거청산을 역사에 맡기자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갑갑했었는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사건으로 해서 잘못된 과거 청산의 계기가 되었다

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한편 우리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게 생각해요.

- 재야 운동권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후 정치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십니까?

재야 운동권의 사회적 기능이라면 문제 제기의 장이고, 정치는 문제 해결의 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해결의 장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기사 여러분들도 그 생생한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다 알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옳은 방향으로 안가는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표결의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국민을 위한 정치와 당내정치가 차이가 나고 또 우리 정치가 보스중심의 정치, 줄서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따르는 현상들이거든요.

-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갈 기회가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두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슬롯머신사건 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국회 발언을 마치고 나왔을 때의 차가운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언론사를 국감 대상기관에 넣자 했을 때에도 잘 안되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심지어 동료 야당의원들 까지도 가세하여 주지 않을 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 때 사실은 패배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긴 숨을 쉬자 하면서 눈물을 속으로 삭였지요.

- 특별히 정치를 하시면서 내세우시는 정치철학이나 신념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크리스천인데 기독교 방송국 출판부에서 나온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적 신앙은 이를테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자금사건 때문에 헐박도 있고 위협도 느껴요. 그럴 때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되고 그것이 곳곳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불교에서의 번뇌가 기독교에서는 유혹 아니겠어요? 유혹은 한번 넘겼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거든요. 그런 유혹을 잘 버티고 견디면 저항력이 생기지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잠룡시장인데 잠룡시장이 돈 없는 사람 아닙니까? 태국처럼 부패된 사회에서 돈 하나 들이지도 않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잠룡시장한테 당신 어떻게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한 10년 동안 재산을 갖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 때가 온대요. 그래서 나 보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 국회에서의 첫 발언후 속기록을 읽어보신 감회라든가 느낌은?

속기록을 읽었을 때 사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속기록은 아무런 정치적인 해석이나 주석이 없이 사실 그대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방대한 양이 상세하게 기록된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사초가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다른 의원들도 속기록을 대할 때 정신이 바짝

들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속기록을 한번 보았는데 법안이 나올 때마다 찬반투표한 것까지 나와요. 기명투표제가 되니까 그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명투표제를 해야 유권자들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책임있는 정치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의 성향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과연 옳게 입법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로부터 감시와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됩니다.

-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회의록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그럼요. 속기록은 제가 발언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다 떠올릴 수가 있게 되고 다른 의원들의 발언까지도 전부 잘 정리되어 보존되고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처음 하면 한 몇년 전 속기록에서부터 짝 한번 넘겨보면 그 위원회의 현안이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떠한 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속기록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희 지역구 지자체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면 속기록부터 보도록 권유를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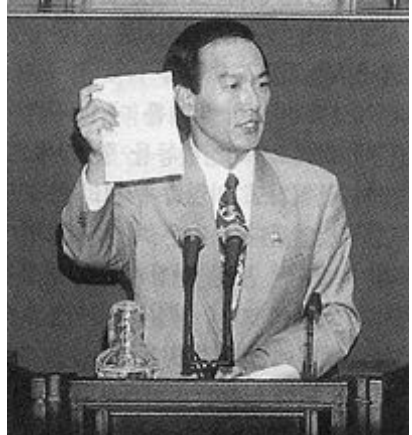
- 회의록을 꼭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요즈음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서 이익집단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가 점점 자료에 근거해야 하고 자기가 한 발언도 자료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소위원회는 속기가 안되고 있는데 소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의원들 자체가 그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가 행정부의 시녀화된 모습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록화가 안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어떤 흥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요. 위원회는 속기록에 다 기록되니까 기록성에 중압감을 받는데 소위로 넘어가면 그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법률심사소위나 청원심사

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소위원회도 속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회의록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역사는 과거의 정치이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지요. 그것이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은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예를 들어 성문화된 것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이나 혹은 유추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회의록으로 되돌아가서 그 입법취지나 입법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은 역사성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석에 대한 의미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요.



- 발언 때 사진이나 증거물을 많이 제시하시는데 그런 증거물이나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1차 자료에 의미를 더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의정활동을 할 적에 그 현장의 분위기도 머릿속에 그리지도 못하면서 발언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항상 현장과의 밀착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함으로써 쉽게 문제점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되어 있는 2차 자료보다는 현장감을 먼저 존중하지요.

- 조선의원으로서 14대를 마감해가는 시점에서 스스로 의정활동 성적표를 매기신다면? 대외적으로는 A플러스 학점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또 그 정도면 됐잖아 하는 동료의

원들의 질책도 많이 받아요. 또 구청같은 데서는 2억 10억이 굉장히 큰 예산이고 단 돈 100만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는데 국회만 오면 50억 100억 짜리 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느냐 그러면서 큰 정치해라 그러는데 아직 저의 도덕적 관념으로는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는데 자꾸 따지다 보면 동료의원들이 그만두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일 섭섭하지요.

- 속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일 부러운 것이 속기사들 속기하는 것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때 한 친구가 속기로 노트를 하더라고요. 이해는커녕 받아 적는 데 급급한데 그것을 여유있게 속기로 적으니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한 때 속기책을 샀지요. 그런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속기사들한테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속기사들도 그냥 발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의정감시자예요. 직업인으로서의 속기사 이전에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보는 감시자들인데 한 번 글로 쓰세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고해야 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생생하게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속기사들이 14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기록해 보면 굉장히 재미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 변화도 주면서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과 그러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 주세요. 늘 기록하는 것이 일이신데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속기사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기인들의 업무지침서, 국회회의록작성편람

1995년 8월, 실로 22년만에 속기인들의 업무지침서라 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작성편람」이 수정, 간행되었다. 시대는 정보화, 산업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우리 속기계 역시 그런 변화의 물결에 따라 전산화체제가 자리잡혀가는 등 계속해서 진보의 걸음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편람은 그런 의미에서 만사지탄의 감은 있으나 변화된 체제에 맞추어 간행되어 속기실무에 있어서 교과서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람간행작업에 관여해온 채강희서기관을 만나 편람 발전전후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발간배경

100명이 넘는 인원이 우리 국회회의록 작성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로 회의록의 체제나 용어·서식표기 방법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국회법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내규 등이 시대의 변천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작성요령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변화되지 못한 채 각종 표기방법을 놓고 표준화가 되지 못하여 속기담당 직원은 물론 편집담당 직원마저 우왕좌왕해 오던 중 작년에 와서야 겨우 미진한 면은 있지만 현실에 맞는 업무지침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편람간행과정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편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팀의 인적구성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홍순관 속기2과장을 위시해서 열의를 가진 분들로 구성된 편집위원 상호간에 팀웍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회의록을 선례로 삼고 관련 법규는 물론 서식의 배열 등에 이르기까지 편집위원 각자가 분담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원고를 작성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헌법과 국회법의 개정으로 국정감·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록업무의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회의록관련 각종 요구·신청 등의 절차를 보다 명백히 규정함은 물론, 서면질문·답변서 등의 게재방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규정·내규·지침을 전면 개정 또는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작업에 예상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막상 회의록 원고작성의 지침서로서의 편람을 발간하는 데는 시간제약에 쫓길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주요내용

제1편에 회의록관계법 발체를 비롯해서 제2편에는 속기 및 원고작성, 본회의·위원회 및 국정감·조사회회의록의 작성, 편집·발간·배부 보존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제3편으로 전산작업 기준과 상임위원회별 관계기관 이름 및 직함표기 모음 등이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의 표기상 통일을 기하는데 편리하도록 나누어 놓았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점

전문 19조 부칙으로 되어 있던 기존 내규를 6장58조 부칙으로 세분화하여 전면 재편함에 따라 내규 조문순서에 입각한 조문해설 또는 찾아보기 방식으로 편람을 엮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내규의 각 조문별 제목만 확인하면 곧바로 해당사항에 대한 해설이나 보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색인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사용 등 보완할 점은

회의록발간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한자의 혼용부분이 신속발간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 인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회의록이고 보니 한자사용 범위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록작성에관한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된 경우만 한자를 사용토록 하고 있어 번문과정에서부터 가능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입력하는 길만이 보다 질 좋은 회의록을 발간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밝힌 대로 점차적으로 이 한자의 사용범위를 줄여 가는 것이 신속한 회의록을 발간하는 데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겠지요.

이 기회에 선·후배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제약된 시간내에 이 편람을 발간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끔은 호의적으로 지적이나 의견을 보내오는 분들도 있지만 실무과정이나 검토과정에서 침착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고스럽더라도 후학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미진한 점은 바로바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은 회의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지난해 정기국회는 여·야 합의하의 예산안 통과와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5.18특별법 제정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정치상황속에서 형식과 내용면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성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속기계로서는 그 동안 통일외무위원회 해외공관 감사에 대한 회의록이 발간되지 못했었는데 95년에 의정사상 최초로 속기사들도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수행하게 되어 드디어 회의록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국감을 수행했던 속기사 세 분과 통일외무위원회 김용구과장님, 속기2과 홍순관과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홍과장님께서 이번 해외국감 수행의 의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관 사실 그 동안 해외국감 회의록을 당연히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외여비 문제로 속기사 수행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못하다가 95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서 속기사가 파견됨으로써 회의록다운 회의록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속기사 없는 해외국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고 해서 95년도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넣었더니 다행히 윗분들이나 예산당국에서 도와주어 처음으로 성사가 된 것입니다.

○사회 물론 총차장님 등 윗분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겠지만 실무를 담당했던 분의 숨은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용구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용구** 이번에 해외감사 활동을 속기사들과 함께 수행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 획기적인 일이고 또한 의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이것이 민주적인 의회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해외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기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과장님 말씀대로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 국회법에 충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제공이라든가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속기사 없는 회의'가 '속기사 있는 회의'로 바뀌어졌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약 10일 동안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직접 다녀오신 안기철씨 손숙자씨 간찬기씨 세 분께서 먼저 대강의 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안기철** 저는 미주반에 편성되었는데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 LA 총영사관 그리고 과테말라와 파나마 등 3개국 4개 기관을 다녀왔고 반장님은 오세응위원장이셨습니다.

○**손숙자** 저는 아주반에 편성되었는데 중국대사관, 베트남대사관 일본대사관에서는 정식으로 회의를 했고 필리핀대사관과 호치민총영사관 홍콩총영사관은 브리핑을 받는 정도로 해서 전부 6개 기관을 다녀왔고 반장님은 구창림위원장이셨습니다.

○**간찬기** 저는 구주반에 편성되었는데 프랑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러시아 4개국을 다녀왔고 반장님은 이세기의원님이셨습니다.

○**사회** 장시간의 비행기 탑승과 낮선 이국에서의 빠듯한 일정으로 상당히 강행군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더군다나 일반 관광여행도 아니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감사의 경우 몇 사람이 한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면이 있지만 재외공관 감사의 경우 혼자서 몇시간이고 계속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간다는 데 대한 선호도와 업무량의 과다에 따른 어려움의 양면성이 있는데 홍과장님께서 이 세 분이 선발되게 된 선발기준이나 과정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순관** 우선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대전제하에서 1과 2과를 구분하지 않고 그 고생을 감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다음에는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신참이어서도 안된다 그런 생각이었고 또한 과 업무에 무엇인가 조금 기여를 한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몇 가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사회** 안기철씨는 해외 국정감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기철** 여름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날 아침에 국정감사 수행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오래전부터 95년에는 해외 국감에 속기사도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예년에 하던 대로 평범하게 국내국감을 다녀오고 싶었는데 명단을 보니 제가 선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기 싫었지만 명령이 나고 보니 분명히 고생할 것은 뻔한데 그것을 내가 싫어하면 안되겠구나 일단 부딪혀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간의 관광스케줄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만 관심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처신 하기가 곤란했어요.

○**사회**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조금 좋아 보이면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진짜 고생하는 것은 잘 모르게 되나 봅니다.

간찬기씨는 처음 선발되었을 때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간찬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준비로 상당히 바쁠 때였고 처음부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해외여행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담이 되었지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나가서 열심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회** 특히 손숙자씨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떠나기 전부터 격무를 이겨

낼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몸살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숙자** 저의 경우는 여자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선발이 되었다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선배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여자로서는 처음 가니까 제가 잘 해야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니까 어깨가 무거워져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해외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함께 가신 전문위원님께서 잘 알려 주시고 해서 제가 여기서 걱정하고 힘들어 했던 것보다는 아주 잘 견디고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 김용구과장님께서서는 해외국감 경험이 많으신데 이번에 속기사와 동행해 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김용구** 지난 국정감사 때 처음으로 속기사와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 시간관계상 사전에 업무분담이라든지 아무런 상호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서로 협력해서 잘 처리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의외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바쁠 때는 사실은 외부 직원한테 부탁해야 될 문제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안기철씨와 같이 갔는데 해외경험이 없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좀 당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워낙 민첩하게 잘해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사회** 팀웍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해외국감 수행 속기사로 남자직원만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속기과직원의 남녀비율이 약 1대3 정도로 여자속기사가 훨씬 많은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속기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관계로 속기과와 통일외무위원회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남자직원을 선호할 것 같고 속기과에서는 거기에 응할 형편이 못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구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남자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첫째 이유가 경비문제때문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자직원끼리 서로 방을 같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야 사고가 생기면 대사관 직원이 커버해 줄 수도 있지만 속기사가 없으면 회의를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언론하고 속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숙자씨를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나라 생활패턴도 바뀌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구별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 주로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홍순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선발을 했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좀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일외무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요즈음은 추세가 좀 바뀌었는데 국감 초창기에는 모든 위원회가 다 남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속기사가 80%이상이다 보니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하게 되었지요.

○사회 이번에 손숙자씨가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모범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요즈음 공무원 여비도 현실화되는 추세로 가는데 국감경비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서 예산때문에 인력운영하는 데 지장이 오는 상황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외국감시 속기노트, 녹음기 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았을텐데 준비사항 및 미비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안기철 공관의 준비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연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과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준비를 해 주셨고 특히 마이크같은 것도 휴대를 하고 갔는데 정식음향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창문밖에서 사이렌소리가 들리는 감사장도 있고

해서 실무하는 데 예상보다 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해 왔기 때문에 다음에 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보통 국감 때 보면 위원회에서 행정부쪽에 공문을 보내 여러 가지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외무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도 아니고 해외공관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김용구** 모두 외무부를 통해서 하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홍순관** 다른 것은 몰라도 속기사 1명이 장시간 속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그 보완책으로 녹음시설만은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안기철** 녹음도 중요하지만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대사님과 테이블 각 끝에 앉으신 분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대화가 되지만 가운데 속기사석 쪽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홍순관** 녹음시설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은 물론 마이크를 사용해서 잘 들리도록 하고 녹음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흔히 속기를 잘 모르는 분들의 생각이 자기는 잘 못 들은 얘기도 속기사는 상당히 특별한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사회** 그의 업무상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손숙자** 저희 속기사들이 처음 나가서 그런지 수감대상 공관에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 자리에는 자료를 놓았는데 속기사 자리에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기사석에도 자료가 놓여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속기사석에 명패가 되어 있지 않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출석자 명단 챙기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일본공관에서 보고자료를 디스켓 복사를 해왔는데 원고

작성하는데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김용구** 96년 국감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주시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찬기** 제 경우는 업무적인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처음 외국에 나갔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비싸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가 죽더니 헝가리를 가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안기철** 먼저 업무쪽으로는 국내에서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의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실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주로 시사성 있는 내용이니까 대강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흐름을 알 수 있는데 해외감사의 경우에는 업무내용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고, 업무외적으로는 고유업무 이외에 약간의 수행 업무가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일단 부딪혀 본 것이지요. 저희 미주반의 경우 김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수행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가 세부일정 숙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야만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등산할 때 너무 강행군을 하다 보면 앞사람 등만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너무 바쁜 일정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아니었는지 어떻습니까?

○**손숙자** 국감 첫날 여기서 10시30분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1시간만에 중국에 도착해서 그날은 만리장성 자금성 등을 관광했는데 대사관에서 통역 관도 나오고 사진도 찍고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이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관광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하루 종일 회의만 해서 마지막 방문지인 일본에서는 너무 피곤에 지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기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오후에는 내가 속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 4개월

정도가 지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쌀회답이나 일본대사의 망언 등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힘은 들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김용구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정할 때는 주로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가 걸려 있는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포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간 파나마라든지 과테말라같은 곳도 왜 그렇게 조그마한 공관을 선정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사라든지 교민들이 그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국회의장도 한번 만나 보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공관에 왔다는 것이 그 나라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 효과가 아주 큼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저 관광이나 한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 동안에 기록이 없어서 언론에는 다르게 비춰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찬기 저같은 경우는 현지에 갈 때부터 관광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없었고 일단 속기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시간이 되면 그 나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틈틈이 돌아다닐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안기철 전에 제가 제주도로 국정감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일요일을 이용해서 혼자 한라산을 등반한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기본 업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체력을 안배하면서 공식스케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해외에서도 역시 짜투리시간을 이용해 해외문물을 직접 취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시차문제도 있고 장시간을 혼자서 정신집중을 해서 속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역시 의원님들 뒤꿈치만 보고 따라다니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숙자 짜투리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사실 야경도 좀 보고 싶은데 걱정하실까봐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김용구** 사실 외국에 나가서 저녁이라도 한번 나갔다 오는 것과 그냥 호텔에 있다가 짐싸서 다음날 출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사부인이나 공사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 잘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사회** 김과장님께서서는 해외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국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얼굴을 보기는 힘드니까 외부에서 속기과, 속기사를 보는 눈 또 국회의회의록을 보는 눈은 어떠한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구** 제가 속기를 중요하게 느끼게 된 것은 사실 국회에 들어온 뒤 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기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것이 민주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를 하시는 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긍지도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다른 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좀 더 많은 자율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위원회회의록이 한두 달 걸려 나오는 문제, 사실 본회의보다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바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이나 업무개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홍순관**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우리 속기과 직원들이 자기계발이나 이런 데에 조금 소홀한 것이 사실이고 우물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어서 빨리 첨단기술화되어서 속기의 최종산물인 회의록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속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속기과 나름대로도 번문시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또 컴퓨터속기를 도입해서 회의록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과장님께서 일반적인 속기과직원들의 기본자세라고 그럴까 바람직한 근무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홍순관** 바람직한 근무자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업무에 충실하는 것이지요. 속기라는 것은 신속해야 됩니다. 이 말은 속기만 신속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산물인 회의록까지 신속하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속기는 정확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빨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 번에 제가 해외국감 나가는 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는데 첫째는 고생스러운 일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얘기를 했고 둘째로는 이번에 해외국감을 여러분들이 처음 나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나갈 사람들의 훌륭한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일이 메모를 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두 내 일처럼 생각하라는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었는데 다행스럽게 열심히들 해서 칭찬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자기발전으로 이어지고 또 자기계발 노력의 계기로 삼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 김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구** 다른 성과보다는 윗분들의 배려와 더불어 홍과장님과 속기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외공관 감사가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인 것 같습니다.

○**사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탄없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시작은 항상 힘들고 험난하다고 했는데 첫출발을 훌륭하게 해주신 세 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이번 해외국감 수행을 계기로 우리 속기계도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추어 좀더 넓고 대승적인 자세로 자기계발 노력에 박차를 가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95 해외국감을 다녀와서

○사회 지난해 정기국회는 여·야 합의하의 예산안 통과와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5.18특별법 제정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정치상황속에서 형식과 내용면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성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속기계로서는 그 동안 통일외무위원회 해외공관 감사에 대한 회의록이 발간되지 못했었는데 95년에 의정사상 최초로 속기사들도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수행하게 되어 드디어 회의록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국감을 수행했던 속기사 세 분과 통일외무위원회 김용구과장님, 속기2과 홍순관과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홍과장님께서 이번 해외국감 수행의 의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관 사실 그 동안 해외국감 회의록을 당연히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외여비 문제로 속기사 수행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못하다가 95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서 속기사가 파견됨으로써 회의록다운 회의록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속기사 없는 해외국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고 해서 95년도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넣었더니 다행히 윗분들이나 예산당국에서 도와주어 처음으로 성사가 된 것입니다.

○사회 물론 총차장님 등 윗분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지만 실무를 담당했던 분의 숨은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용구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김용구** 이번에 해외감사 활동을 속기사들과 함께 수행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 획기적인 일이고 또한 의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이것이 민주적인 의회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해외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기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과장님 말씀대로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 국회법에 충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제공이라든가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속기사 없는 회의'가 '속기사 있는 회의'로 바뀌어졌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약 10일 동안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직접 다녀오신 안기철씨 손숙자씨 간찬기씨 세 분께서 먼저 대강의 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안기철** 저는 미주반에 편성되었는데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 LA 총영사관 그리고 과테말라와 파나마 등 3개국 4개 기관을 다녀왔고 반장님은 오세웅위원장이셨습니다.



○**손숙자** 저는 아주반에 편성되었는데 중국대사관, 베트남대사관 일본대사관에서는 정식으로 회의를 했고 필리핀대사관과 호치민총영사관 홍콩총영사관은 브리핑을 받는 정도로 해서 전부 6개 기관을 다녀왔고 반장님은 구창림의원장이셨습니다.

○**간찬기** 저는 구주반에 편성되었는데 프랑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러시아 4개국을 다녀왔고 반장님은 이세기의원님이셨습니다.

○**사회** 장시간의 비행기 탑승과 낮선 이국에서의 빠듯한 일정으로 상당히 강행군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더군다나 일반 관광여행도 아니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감사의 경우 몇 사람이 한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면이 있지만 재외공관 감사의 경우 혼자서 몇시간이고 계속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간다는 데 대한 선호도와 업무량의 과다에 따른 어려움의 양면성이 있는데 홍과장님께서 이 세 분이 선발되게 된 선발기준이나 과정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순관** 우선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대전제하에서 1과 2과를 구분하지 않고 그 고생을 감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다음에는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신참이어서도 안된다 그런 생각이었고 또한 과 업무에 무엇인가 조금 기여를 한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몇 가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사회** 안기철씨는 해외 국정감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기철** 여름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날 아침에 국정감사 수행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오래전부터 95년에는 해외 국감에 속기사도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예년에 하던 대로 평범하게 국내국감을 다녀오고 싶었는데 명단을 보니 제가 선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기 싫었지만 명령이 나고 보니 분명히 고생할 것은 뻔한데 그것을 내가 싫어하면 안되겠구나 일단 부딪혀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간의 관광스케줄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만 관심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처신하기가 곤란했어요.

○**사회**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조금 좋아 보이면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 사

람이 거기 가서 진짜 고생하는 것은 잘 모르게 되나 봅니다.

간찬기씨는 처음 선발되었을 때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간찬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준비로 상당히 바쁠 때였고 처음부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해외여행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담이 되었지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나가서 열심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회 특히 손숙자씨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떠나기 전부터 격무를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몸살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숙자 저의 경우는 여자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선발이 되었다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여자로서는 처음 가니까 제가 잘 해야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니까 어깨가 무거워져서 밤에 잠이 잘 안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해외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함께 가신 전문위원님께서 잘 알려 주시고 해서 제가 여기서 걱정하고 힘들어 했던 것보다는 아주 잘 견디고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 김용구과장님께서서는 해외국감 경험이 많으신데 이번에 속기사와 동행해 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김용구 지난 국정감사 때 처음으로 속기사와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 시간관계상 사전에 업무분담이라든지 아무런 상호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서로 협력해서 잘 처리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출

발을 했는데 의외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바쁠 때는 사실은 외무부 직원한테 부탁해야 될 문제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안기철씨와 같이 갔는데 해외경험이 없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좀 당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워낙 민첩하게 잘해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잘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사회** 팀웍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해외국감 수행 속기사로 남자직원만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속기과직원의 남녀비율이 약 1대3 정도로 여자속기사가 훨씬 많은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속기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관계로 속기과와 통일외무위원회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남자직원을 선호할 것 같고 속기과에서는 거기에 응할 형편이 못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구**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남자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첫째 이유가 경비문제때문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자직원끼리 서로 방을 같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야 사고가 생기면 대사관 직원이 커버해 줄 수도 있지만 속기사가 없으면 회의를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언론하고 속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숙자씨를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나라 생활패턴도 바뀌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구별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 주로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홍순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선발을 했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좀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일외무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요즈음은 추세가 좀 바뀌었는데 국감 초창기에는 모든 위원회가 다 남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속기사가 80%이상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하게 되었지요.

○**사회** 이번에 손숙자씨가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모범이 되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요즈음 공무원 여비도 현실화되는 추세로 가는데 국감경비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서 예산때문에 인력운영하는 데 지장이 오는 상황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외국감시 속기노트, 녹음기 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았을텐데 준비사항 및 미비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요.



○**안기철** 공관의 준비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연속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과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준비를 해 주셨고 특히 마이크같은 것도 휴대를 하고 갔는데 정식음향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창문밖에서 사이렌소리가 들리는 감사장도 있고 해서 실무하는 데 예상보다 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해 왔기 때문에 다음에 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보통 국감 때 보면 위원회에서 행정부쪽에 공문을 보내 여러 가지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외무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도 아니고 해외공관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김용구** 모두 외무부를 통해서 하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홍순관** 다른 것은 몰라도 속기사 1명이 장시간 속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그 보완책으로 녹음시설만은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안기철** 녹음도 중요하지만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대사와 테이블 각 끝에 앉으신 분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대화가 되지만 가운데 속기사석 쪽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홍순관** 녹음시설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은 물론 마이크를 사용해서 잘 들리도록 하고 녹음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흔히 속기를 잘 모르는 분들의 생각이 자기는 잘 못 들은 얘기도 속기사는 상당히 특별한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사회** 그외 업무상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손숙자** 저희 속기사들이 처음 나가서 그런지 수감대상 공관에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 자리에는 자료를 놓았는데 속기사 자리에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기석에도 자료가 놓여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속기석에 명패가 되어 있지 않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출석자 명단 챙기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일본공관에서 보고자료를 디스켓 복사를 해왔는데 원고작성하는데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김용구** 96년 국감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주시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찬기** 제 경우는 업무적인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처음 외국에 나갔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야 되겠구나 하

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비싸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가 죽더니 헝가리를 가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안기철 먼저 업무쪽으로는 국내에서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의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실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주로 시사성 있는 내용이니까 대강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흐름을 알 수 있는데 해외감사의 경우에는 업무내용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고, 업무외적으로는 고유업무 이외에 약간의 수행 업무가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일단 부딪혀 본 것이지요. 저희 미주반의 경우 김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수행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가 세부일정 숙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라야만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등산할 때 너무 강행군을 하다 보면 앞사람 등만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너무 바쁜 일정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아니었는지 어떻습니까?

○손숙자 국감 첫날 여기서 10시30분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1시간만에 중국에 도착해서 그날은 만리장성 자금성 등을 관광했는데 대사관에서 통역관도 나오고 사진도 찍고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관광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하루종일 회의만 해서 마지막 방문지인 일본에서는 너무 피곤에 지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기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오후에는 내가 속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는데 국정감사가 끝난지 4개월 정도가 지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쌀회답이나 일본대사의 망언 등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힘은 들었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김용구**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정할 때는 주로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가 걸려 있는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포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간 파나마라든지 과테말라같은 곳도 왜 그렇게 조그마한 공관을 선정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사라든지 교민들이 그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국회의장도 한번 만나 보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공관에 왔다는 것이 그 나라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 효과가 아주 큼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저 관광이나 한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 동안에 기록이 없어서 언론에는 다르게 비춰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찬기** 저같은 경우는 현지에 갈 때부터 관광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없었고 일단 속기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시간이 되면 그 나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틈틈이 돌아다닐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안기철** 전에 제가 제주도로 국정감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일요일을 이용해서 혼자 한라산을 등반한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기본 업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체력을 안배하면서 공식스케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동을 해야되겠지만, 해외에서도 역시 짜투리시간을 이용해 해외문물을 직접 취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시차문제도 있고 장시간을 혼자서 정신집중을 해서 속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역시 의원님들 뒤꿈치만 보고 따라다니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숙자** 짜투리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사실 야경도 좀 보고 싶은데 걱정하실까봐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김용구** 사실 외국에 나가서 저녁에라도 한번 나갔다 오는 것과 그냥 호텔에 있다가 짐싸서 다음날 출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

는 대사부인이나 공사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 잘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사회** 김과장님께서서는 해외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국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얼굴을 보기는 힘들니까 외부에서 속기과, 속기사를 보는 눈 또 국회회의록을 보는 눈은 어떠한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구** 제가 속기를 중요하게 느끼게 된 것은 사실 국회에 들어온 뒤 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기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것이 민주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를 하시는 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긍지도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다른 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좀 더 많은 자율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위원회회의록이 한두 달 걸려 나오는 문제, 사실 본회의보다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바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이나 업무개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홍순관**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우리 속기과 직원들이 자기계발이나 이런 데에 조금 소홀한 것이 사실이고 우물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어서 빨리 첨단기술화되어서 속기의 최종산물인 회의록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속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속기과 나름대로도 번문시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또 컴퓨터속기를 도입해서 회의록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과장님께서 일반적인 속기과직원들의 기본자세라고 그럴까 바람직한 근무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홍순관** 바람직한 근무자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업무에 충실하는 것이지요. 속기라는 것은 신속해야 됩니다. 이 말은 속기만 신속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산물인 회의록까지 신속하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속기는 정확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빨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 번에 제가 해외국감 나가는 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는데 첫째는 고생스러운 일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얘기를 했고 둘째로는 이번에 해외국감을 여러분들이 처음 나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나갈 사람들의 훌륭한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일이 메모를 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두 내 일처럼 생각하라는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었는데 다행스럽게 열심히들 해서 칭찬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자기발전으로 이어지고 또 자기계발 노력의 계기로 삼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 김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구** 다른 성과보다는 윗분들의 배려와 더불어 홍과장님과 속기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외공관 감사가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인 것 같습니다.

○**사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기탄없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시작은 항상 힘들고 험난하다고 했는데 첫출발을 훌륭하게 해주신 세 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이번 해외국감 수행을 계기로 우리 속기계도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추어 좀더 넓고 대승적인 자세로 자기계발 노력에 박차를 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를 찾아서

조 미 경 (협회 기자)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체는 1995년 6·27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까지 선출됨으로써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본 협회 홍보부에서는 지방의회 현황과 속기업무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1월19일 이주성 회원부장과 조영기 홍보부장 그리고 본인 이렇게 셋이서 남한의 중부권에 위치한 대전광역시의회를 찾았다.

대전광역시의 의회현황은 여느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91년 초대의회가 구성된데 이어 제2대 의회는 95년 6월27일 23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된 23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3명의 의원 등 총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각 지방의회마다 지방의회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어 의장단의 구성이나 회의체의 구성과 회기 등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바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되어 있다.

의회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시의회에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그 밖에 의회운영, 내무, 문교사회, 산업건설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에 소집되어 12월 30일까지 40일 동안이며 임시회는 1회기당 15일 이내의 회기로 열리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협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의회의 회의록 작성과 속기업무의 현황 등을 간단히 살펴 보면 의회사무처내에 의사담당관실의 기록계에서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 10명의 직원중 기록계장과 행정직 1명을 제외한 남녀 각4인씩으로 구성된 8명의 속기사가 모든 회의의 기록과 편집, 교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상당히 과중한 업무임을 알 수 있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 본회의는 속기사 전원이 2인1조로 구성되어 30분씩 기록을 하고 4개 상임위원회는 속기사 2명이 1개의 위원회를 맡아서 30분씩 교대로 기록하고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1인 1조로 30분씩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

번문작업에 필요한 PC는 2인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곧 1인 1대 체제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회의록은 편집과 교정을 거쳐 발간된 후 각 의원 및 집행부, 도서관과 각 구청으로 배부되고 있다. 특히 시정질문은 책자를 별도로 발간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 의회의 속기사는 의회사무처를 처음 구성할 당시 속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속기협회 차원의 노력과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의회의 차원에서 속기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한번 제도화된 직제나 관행은 쉽게 고칠 수 없게 됨을 보면서 속기협회 차원에서 이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한꺼번에 폭주하는 의회업무의 특성상 회기 때는 눈코뜰새 없이 바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속기사는 회의의 속기·번문업무 뿐만 아니라 편집·교정·회의록의 배부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사기진작과 속기직으로의 직렬구분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일행은 공식일정 하루 전인 1월18일(목) 대전시 의회 속기사와 구의회 속기사들이 자리를 함께 한 저녁모임을 통해 속기인 위상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협회에 바라는 사항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았으나 아직 그 힘의 결집력이 미약해 보여 속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다.



1월19일 오전 10시에 우리 일행 3인은 대전시 의회 이학구 의사담당관을 찾아 대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홍규 기록계장과 대전시의회 속기사 노재현씨도 함께 참석했다.

의사담당관은 회의록 작성·발간의 어려움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컴퓨터 속기사(4명)를 채용한 국회의 예를 들며 앞으로 현 속기사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컴퓨터 속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나 다만 아직 컴퓨터 속기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구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기사의 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속기사의 증원문제나 속기직으로의 직렬 전환문제 등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등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협회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속기인의 공동체인 협회에서 타 시·도 속기사들과의 교류와 전문적인 속기실무 교육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속기인들의 결속을 다진다면 속기사의 위상제고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의성 짙은 당부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홍규 기록계장은 협회회원 가입에 있어서 지방의회 기록담당실이라는 단체가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펴기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협회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일행이 1년에 한 번씩 지방의회를 순방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과연 각 의회의 속기사들이 어떤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하며 또한 속기사로서의 올바른 대접을 과연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해보지만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무엇인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지방의회 회원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속 시원히 해답을 주지 못함이 우리 일행을 더욱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첨단정보시대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속기사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또한 속기사 스스로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전문용어의 습득 등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멀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지구 저편의 모습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 의회의 회의록 작성업무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우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야말로 상품으로서의 고부가가치적인 회의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배치와 첨단장비의 도입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속기인은 속기업무의 자동화에 대비한 첨단장비의 이용에도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프로가 되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전시 의회를 나섰다.

그게 아니라...

한 동 춘(협회 이사)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서 '홍두깨'는 참깨인가 들깨인가?"

"선생님, 그것은 도깨비 아니에요? 빨 달리고 얼굴이 빨건..."

"@!*"?"

물론 홍두깨는 참깨도, 들깨도 아니다. 또한 도깨비도 아니다.

다듬이돌은 작은 천을 몇 번 접어서 두드리는 기구이고, 홍두깨는 넓은 천을 접지 않고 잘 말아서 다듬는 기구로써 지름이 20여cm 길이도 1m나 좋아 되는 박달나무 봉이다.

요즈음 쓰이지 않는 물건이라 모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안다고 믿기 때문에 물어 보지도, 찾아 보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무심히 지나치는 말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 동안 속기를 가르치며 학생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한다.

1. 「풍년들 입」

위대한 배우였던 이해랑 선생은 본디 이름이 '해랑(海良)'이었는데 사람들이 '해랑'으로 부르므로 아예 '삼수변()'을 붙여 '해랑(海浪)'으로 개명했으며, 충청도 어느 곳의 '김양(金錫)'이라는 사람은 모두들 '김석(金錫)'으로 읽으므로 '당노(馬額飾) 양(錫)'자를 '주석 석(錫)'으로 바꾸고 "나는 김석이오" 했다고 한다. 나의 친구 중에 강임(姜稔)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역시 사람들이 稔을 '염'으로읽으므로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다. 옥편(玉篇)을 찾아보면 '풍년들 입, 곡식 익을 입, 해 입, 오렐 입'이고 '염'의 속자로 되어있다. 서울특별시장을 오래 한 梁鐸植씨는 '택식'이 발음하기 불편해서인지 언론에서도 '택식'으로 보도하자 결국은 본인도 '택식'이 되고 말았다.

최 금'자 金씨인 작곡가 금수현 선생은 '금씨'로 불리기를 바랐으나 그리 되지 않으므로 한글로만 성명을 썼으며 그의 아드님인 지휘자 금난새

씨도 한글로만 쓴다.

寧은 '편안할 녕'으로 안녕(安寧)·강녕(康寧)처럼 쓰이며, 다만 회령(會寧)·의령(義寧)처럼 굳어진 지명은 굳어진 대로 쓰고 있다. 그러므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李御寧 선생은, 한국을 세계에 빛낸 신궁 김수녕(金水寧)처럼 '이어녕'으로 불러야 할 텐데 '이어령'으로 불리고 있다.

중국의 정치가 葉劍英은 국내 방송에서 '엽검영'이라 보도했으나 실은 葉이 성(姓)이기 때문에 '섭'으로 읽어야 하며, 후백제를 세운 甄萱도, 인기 텔런트 甄美利도 '진훤' '진미리'이다. 이는 성(姓)일 때 '쇠 금(金)'자를 '김'으로, '수레 거(車)'자를 '차'로 읽는 것과 같은 이유다.

"高麗 때 장군 姜邯贊은 契丹의 침입을 맞아 싸워서 전멸시켰다."

麗자는 '고을 려, 빛날 려'이나 '나라이름 리'이기도 하여 주몽(朱蒙)이 세운 나라는 '고구리', 왕건(王建)이 세운 나라는 '고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감찬'이라 하는 邯자는 '땅이름 한'이므로 '강한찬'이라 해야 하고 '글단(契丹)'이라는 丹자는 '붉을 단, 새 이름 단'이므로 '글단'이라 해야 할 것이다.

"고리 때 장군 강한찬은 글단의 침입을……"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같아 잠깐 생각해 보았다.

2. 오지둔야(吾之臀也)

옛날 어느 고을에 잘난 체하며 아무에게나 문자를 마구 쓰는 백성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고을 원님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불러다 꾸짖으니 이 백성이 하는 말이 "수령지엄명(守令之嚴命)을 봉(奉)하여 차후불용문자(此後不用文字) 하오리다." 이에 화가 난 원님은 마침내 곤장으로 다스리게 되었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이 백성은 "통야(痛也) 통야(痛也), 오지둔야(吾之臀也)" 하더라.

'오지둔야'의 둔(臀)은 우리 말로 무엇이라 하는가?

물론 표준어는 볼기 또는 엉덩이고 그 밖에 '웅덩이' '방덩이' '궁덩이'는 다 비표준어다. 점잖지 못하게 웬 엉덩이 타령이나 하겠지만 읽어 두면 쓸모가 있을 것이다.

60년대 남정네들이 술안주 삼아 떠들던 이야기가 있다. 꽃다운 아가씨의 엉덩이는 방(芳)덩이, 내놓은 계집의 그것은 방(放)덩이, 짝없는 여자의 그것은 궁(窮)덩이, 행복한 아주머니의 그것은 응(應)덩이란다. 모두 다 비

표준어다. 이런 쓸데없는 농담이 우리를 헛갈리게 했다.

말썰만 일으키는 강아지를 뒤쫓아 가서 발길로 걷어찼다면 개는 어디를 얻어 맞았는가? 물론 엉덩이를 얻어맞았겠지. 그런데 길짐승의 엉덩이는 따로 방둥이라고 하니 발길로 채인 곳은 방둥이가 맞다.

오래 입은 청바지는 뒷부분이 닳아서 허영게 된 곳이 있다. 엉덩이의 아래 부분으로 앉으면 바닥에 닿는 부분을 궁둥이라고 한다. 먼지앉은 의자에 앉았던 사람의 바지에 먼지묻은 자리를 가리킨다. 한번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을 두고 '궁둥이가 질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엉덩이' '방둥이' '궁둥이'는 서로 다른 말이지만 모두 표준어다.

3. 천보산(天寶山)

조선왕조 넷째 임금인 세조는 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기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불사(佛事)를 일으켜 원혼을 달래었다. 배불숭유(排佛崇儒)의 왕조에서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양 주위에 4대 원찰(願刹)을 정하였는데 동쪽에 천보산 불암사(天寶山 佛巖寺), 서쪽에 북한산 진관사(北漢山 津寬寺), 남쪽에 삼성산 삼막사(三聖山 三幕寺), 북쪽에 북한산 승가사(北漢山 僧伽寺)가 그것이다.

그런데 불암사가 있다 하여 그 산을 불암산으로 부르고 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천보산(天寶山)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관악산(冠岳山)이라 부르는 산은 연주암(戀主庵)이 있는 동쪽이고 삼막사(三幕寺)가 있는 서쪽 산은 삼성산(三聖山)이다.

오래된 은행나무로 유명한, 양평의 용문사(龍門寺)가 있는 산은 용문산인가? 아니다. 미지산(彌智山)이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불러 왔을 뿐이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던가?

4. 두어

옛 양반들은 시정의 물가를 모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상거래는 상인과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고 무엇을 얼마나 얼마에 사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캐어묻지 아니 하였다.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야박하고, 너그러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말에는 어림수가 유난히 많다. 예를 들면, 한두/한둘,

두어/두엇, 두서너/두서넛, 서너/서넛, 너더댓·네다섯·네댓·댓, 대여섯, 예닐곱, 여남은 등으로 두 개의 수를 아우르거나 '가량'(두엇, 댓), '-넘는'(여남은)처럼 정확히 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쇠고기 서너근 주세요." "사과 너더댓 개는 있어야 해." "여남은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 등과 같이 별 불편없이 쓰고 있다. 쇠고기 서너 근 달라는데 세 근 주어도 좋고 네 근 주어도 좋다. 달라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수 개념이 넉넉하지 않은가.

우리가 자주 쓰는 어림수에 수십, 수백, 수천 하는 수(數)가 있다. 몇을 말함인가? 數는 '두어 수'이다. '두어'라는 말은 '둘 가량'이지만 '둘 셋'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2·30, 2·300, 2·3000이다.

참고로, 數數는 '자주자주'의 뜻은 '삭삭'이라 읽고, '뵁뵁하다'의 뜻은 '촉촉'이라 읽는다.

5.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시조다.

여기서 나온 '말'은 긴소리로, 경마장에 있는 '말은 짧은소리로 발음하여 구별한다.

제사상에 올리는 '밤'은 긴소리로, 보름달이 뜨는 '밤'은 짧은소리로, 앓아 눕는 '병'은 긴소리로, 옛장수가 집어가는 헌 '병'은 짧은소리로 읽는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소리의 길고 짧음이 있는데 글자로는 표시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방송에서도 자주 틀리는 '정상'이라는 말만 보아도 頂上은 '정상'으로 읽지만 正常은 '정:상'으로 읽어야 한다. 情誼는 '정의'로 正義는 '정:의'로, 全力은 '절력'으로 電力은 '절:력'으로, 成人은 '성인'으로 聖人은 '성:인'으로, 先導는 '선도'로 善導는 '선:도'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말의 긴소리는 그냥 긴소리가 아니라 소리 자체도 다르다. 예를 들면, ' :-'은 거의 ' :-'에 가깝고 ' :-'은 거의 ' :-'에 가깝다. 그리고 ' :-'은 '이은:-', ' :-'은 '이음:-', ' :-'은 '이응:-'을 붙여 읽은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選舉는 '스:거', 戰爭은 '즌:쟁', 性質은 '승:질', 定額은 '증:액', 戀愛는 '이은:애', 研究는 '이은:구', 染色은 '이음:색', 厭世는 '이음:세', 永遠은 '이응:원', 影響은 '이응:향'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앞서 예를 든 正常은 '증:상'으로, 正義는 '증:의'로, 電力은 '증:력'으로, 聖人是 '승:인'으로, 善導는 '승:도'로 읽어야 한다.

6. 우골탑(牛骨塔)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있었다. 동물의 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코끼리의 이, 상아(象牙)이며 가장 흔한 것은 설령탕 끓이고 남은 소의 뼈 즉 牛骨(牛骨)일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학부를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6·25전란 중 피난지에서 항학열에 불타는 사람들, 군 입대를 4년간 연기하려는 사람들로 하여 대학생은 많아졌지만 교수 요원도 부족하고 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당시의 대학을 우골탑이라 낮추어 부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본말만 배우다 중학에 진학한 당시의 청년들은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면서도 배우는 데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용감히 싸워 나라를 지키고 전후에는 다 부서진 시설을 다시 세웠으며 대대로 물려온 가난의 상징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오늘의 번영을 있게 한 분들이다.

노인이라고 이제는 뒷전에 밀려나 있지만 그 분들이 겪어온 많은 경험들은,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후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번영은 우골탑이라 비웃은 곳에서 비롯되었다.

7. 34년 11개월 16일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을 지내기는 했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바로 설날이 닥쳐도 또 한 살을 먹는다. 선달 그믐날에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 날인 설날에 두 살이 되는 것이다. 태어난 날도 치고 설날도 친다. 손님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묵고 오늘 떠나면 하룻밤 잤는데도 온 날 하루 치고 떠난 날 하루 쳐서 이틀 있다 가는 것이다. 그런 넉넉한 정서가 수치스러운 기간까지 늘려 놓고 말았다.

우리는 흔히 '일제 36년'이라고 말한다. 제국주의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고 우리 나라를 강점한 기간을 36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은 1910년 8월 29일이고 우리 민족이

광복한 날은 1945년 8월 15일이다. 그 기간을 계산하면 나올 것이다.

즉 1945년 8월 15일 - 1910년 8월 29일 34년 11개월 16일이다. 35년이 채 안되는 기간이다. 여기에다 나라 빼앗긴 해를 쳐서 '일제 36년'이라 하는데 자랑스럽지 않은 햇수를 늘려서 어찌자는 것인가. 35년도 억울한데...

8. 휴전선 248km

석유파동이 일어나자 바렐이라는 말이 유명해졌다. 석유는 도라무(드럼), 가롱(깁런)으로만 계량하는 줄 알았던 나는 그때 처음 바렐이라는 단위를 들었다. 바렐은 중배가 불룩한 나무 통을 말한다. 일정한 분량을 정해 놓았겠지만 원래 그 통은 크기도, 작기도 만들수 있는 수제품이다. 우리 나라식으로 하면 막걸리 한통, 물 한 지게, 감자 한 삼태기, 국수 한쟁반, 새우젓 한 독, 김치 한 자배기, 과일 한 소쿠리처럼 일정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거래에는 적합치 않을 듯한데 강대국에서 쓰니까 그냥 썼는지 하지만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세계 각국이 통일된 도량형(度量衡)을 쓰기 위하여 1875년 프랑스 정부의 제의로 국제도량형동맹을 창설하고 미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척관법(尺貫法)을 버리고 미터법을 쓰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마일, 파운드 등을 쓰고 있다. 그래도 그렇지 제 나라 땅에 슬프게 그어진 휴전선을 155마일이라니, 마일이 웬말인가. 혹시 '휴전선 620리' 하면 모를까...

1마일은 1.6km이므로 155마일은 248km이다.

9. 벽에 부딪쳐

벽에 부딪쳐 보았는가? 어떻던가? 걸어가다 부딪쳤으면 이마나 코가 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딪다'는 '물건과 물건이 힘있게 마주 닿다'라는 뜻이고 '부딪치다'는 '부딪다'의 힘줄말이다. 발음이 비슷한 '부닥치다'라는 말이 있다. '몸에 부딪칠 정도로 가까이 다다르다'의 뜻이다. 그래서 '벽에 부딪쳤다' 하면 '어려움을 만났다' '한계에 다다랐다'하는 뜻으로 쓰인다.

'부딪치다'는 이미 충돌한 것이고 '부닥치다'는 충돌하기 직전 코앞에 다

가선 것이다. 흔히 쓰는 말 '난관(難關)에 봉착(逢着)했다'에 해당하는 말은 '부닥치다'이다.

10. 미스터 섭(攝), 미스터 화(華), 미스터 열(列)

우리가 온도를 말할 때 쓰는 섭씨, 화씨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스웨덴사람 Celsius를 중국 사람들이 섭씨(攝氏)라 하고, 독일 사람 Fahrenheit는 화씨(華氏)라 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것이다.

Mr. Celsius는 1기압에서 얼음이 녹는 온도를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하는 온도계를 고안했고, Mr.Fahrenheit는 소금물이 어는 온도를 0도, 물이 어는 온도를 32도, 끓는 온도를 212도로 하여 그 사이를 180등분하는 온도계를 고안했다.

그외 프랑스 사람 레이어뮤어(Reaumur)는 물이 어는 온도를 0도, 끓는 온도를 80도로 하는 온도계를 고안하여 이를 열씨(列氏)온도계라 한다.

11. 인화질물지입엄금

몇해 전까지 버스에 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시벨건 글씨로 "인화질물지입엄금"이라는 글자들을 써놓았다. 어느 신문이 가십란을 통해 무슨 주문(呪文) 같다고 꼬집은 이 글자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엄금이 라는 글자를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한번 분석해보자.

인화질(휘발유나 알콜처럼 가까운 데 있는 불을 끌어당기어 터지는 성질)의 물질이나 물건을 지입하지 말라는 뜻일 게다. 그런데 요 '지입'이 수상쩍다. '가지고 들어오다'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왜말 '모찌꼬미(持入)'인 듯, 우리말 사전에는 없다. 한자로 써도 '引火質物持入嚴禁'. 주문 같기는 매한가지, 이런 글자들이 사라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근래에는 각각정리를 한다고 길거리를 파헤친 적이 있었다. '각각'이 무엇인가? 이것도 왜말 '마찌가도(街角)'를 그대로 쓴 듯, 각이 진 거리를 등글게 한다는 말일 게다. 구부러지거나 꺾이어 돌아간 자리를 뜻하는 '모통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왜말이 그렇게 좋다는 말인가?

노견(路肩)이라는 말은 어떤가. 비상시에 이용하려고 길가에 차로 하나를 비워 두는 것인데 '갓길'로 고쳐져서 다행이다.

뜻도 모를 이상한 말들을 그것도 왜말을 마구 들여다 쓰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아직도 일본말을 그대로 베껴다 쓰는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에 '마이'라는 말이 있다. 그야말로 국적 불명의 요상한 말이다. 양복 저고리, 남자 정장의 윗도리를 말한다. 왜말로 신사복 윗도리의 단추가 한 줄로 된 것(싱글)을 '가다마에(片前)', 두 줄로 된 것(더블)을 '료마에(兩前)'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마에(前)'가 변하여 '마이'가 된 것이 아닌가 하여 몹시 씩씩하다. 또 '나시'라는 말도 있다. 이는 '소매 없는 옷'을 왜말로 '소테나시'라 하는데 이중 '나시(없다)'만 쓰고 있으니 정신 '없는' 놈들 정신 차려! 요즘 들으니 어느 의상 디자이너가 이를 민소매'라 하던데 어떨지...

12. 왜말을 경계하라

특히 왜식 외래어를 경계하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친구는 '히틀러(Adolf Hitler)'와 '뭇소리니(Benito Mussolini)'였고, 작은 미국의 '도루망(Harry S.Truman)'과 영국의 '짜찌루(Winston L.S.Churchill)'였다. 우리 나라가 광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도루망' '짜찌루'하고 있을 것이다. 서양의 문물을 서양에서 직접 들여 와야 하는데 일본의 안경을 통해서 들여 오니 와전, 왜곡된 것이 많다.

어느 특파원이 프랑스의 드골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베르사이유에 가자고 하니까 모르더라는 것이다. Versailles를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번 올림픽이 열렸던 스페인의 Barcelona도 '바르세로나'로 읽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뿐인 듯하다.

'쫄꼬렛또-초콜렛', '자겏또-자켓'으로 들어와 굳어졌지만 처음부터 '처클릿', '제킷'으로 들어왔다면 편리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애틀레너(Atlanta)', '펜타곤(Pentagon)'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핫도고히' 해야 뜨거운 커피를 얻어 마실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삼을 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인삼'을 우리나라에서도 영문표기할 때는 'Korea Ginseng'이라 한다. 인삼은 우리 나라 것이고 우리 나라가 주산지고 최대 소비지인데 '진생'이라니, '인삼'의 영어 단어가 '진생'으로 알지만 그것은 인삼을 왜식으로 읽은 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Ginseng'이 아니라 'Insam'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세계에 알려야 한다.

'스텐'이라는 말이 있다. '녹슬지 않는 강철'이란 뜻의 '스테인레스 스틸 (Stainless Steel)'인데 왜말을 통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녹, 얼룩'의 뜻인 '스텐'만 남았으니 이래도 되겠는가?

'다꾸양' 냄새가 나는 외래어들을 몇 개 소개한다.

훼미리(패밀리 family), 카바레(캐버레이 cabaret), 웨곤(왜건 wagon), 스넥(스낵 snack), 화순(패션 fashion), 에아콘(에어 컨디셔너 air conditioner), 텔레비(텔레비전 television), 아파트(apartment), 데파트 (department store), 쇼크흡수(쇼크 흡수부 shock absorber), 호이루(휠 wheel), 도라이바(드라이버 driver), 빠삐용(파빌리언 pavilion), 데드볼 (hit by pitched ball), 카라반(캐러밴 caravan), 사라다(샐러드 salad), 아이롱(아이언 iron), 미리메타(밀리미터 millimeter), 키로그램(킬로그램 kilogram), 보이라(보일러 boiler), 라벨(레이블 label), 뿔뿔리(배터리 battery), 핸들(스티어링 휠 steering wheel), 부레끼(브레이크 break), 아레르기(알러지 allergy), 에네르기(에너지 energy), 화이팅(파이팅 fighting), 키리만자로(킬리만자로 Kilimanjaro), 리리(릴리 lily), 후라워 (플라워 flower), 뽀빠이(팝아이 Popeye), 가라오께(假 orchestra), 히로뽕(필로폰 philopon) 등등

13. 로마자 표기법

일본의 수도 동경을 그들은 '도쿄'로 읽지만 외국인들은 '토쿄'로 읽게 하고, 田中을 그들은 '다나카'라 하면서 외국인들은 '타나카' 하게 한다. 즉 왜말로는 '도쿄' '다나카'지만 영어로는 '토쿄' '타나카'인 셈이다.

우리 나라는 어떤가. '부산'은 '푸산'으로 '김 선생'은 '킴 선생'으로 되지 않았는가. 심지어 '갈비'는 영어로 말하면 '칼비'란다.

나는 영어가 아무리 좋다 해도 '푸산' '킴 선생' '칼비' 안 하고 그냥 부산 가서 김 선생 만나 갈비 얻어 먹을란다.

종각과 총각이 다르고, 발과 팔이 다르며, 갈집과 칼집이 다르고, 신세대와 쉰세대가 다르며, 동대문과 통대문이 다른 언어구조를 이렇게 뒤범벅을 해놓으면 어찌자는 것인가.

왜말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말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홍길동은 왜 '길동 흥'이 되어야 하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는 어디에 가도 홍길동이며 미국에 간다고 눈이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등이 앞으로 오는 것도 아닌 본래 그대로이다. 제 이름을 지키자.

14. 시행착오(試行錯誤)

'정부의 시행착오로 국민들만 골탕 먹는다.

시행착오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시행착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하여 실행하다가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알았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나쁜 것이고 시행착오를 범한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악덕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런 시행이라면 施行이어야 하지만 試行錯誤는 학습양식의 한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방법을 무계획적으로 시행(試行)하여 착오가 있으면 계속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마침내 학습이 성립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돈다이크의 관찰로 이론화되었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trial and error이다.

시대에 뒤떨어져 현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時代錯誤)라 하지만 시행착오를 잘못된 시행으로 착오하면 그야말로 잘못되는 것이다. 시행착오는 시행(trial)과 착오(error)를 되풀이하다가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15. 한 가지 제안

단체로 급식하는 식당은 대개 본인이 스스로 음식을 가져다 먹는 소위 셀프서비스 식당이다. 셀프서비스는 우리말로 할 수 없을까?

'시중'이라는 말이 있다. 옆에 있으면서 잔심부름을 하는 일을 일컫는데 이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제시중'이 되지 않을까?

말은 몰고, 달구지는 끌고, 자동차는 운전하고, 비행기는 조종하는 것으로 굳어진 지금, 운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자가운전이라는 말은 자가용 운전이라는 뜻보다는 제차 운전이라는 뜻이 강한데 제차 운전은 '제운전', 남의 차 운전은 '남운전'이라 하면 어떨까? 자가운전이 매양 낯설기만 하다.

스피드워드(일명 스테노워드)에 대하여

정 상 모

■컴퓨터시대에 맞는 문자처리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의 세계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판도가 빠르게 변화한다. 최신기술처럼 보이던 것이 하루아침에 구닥다리로 전락하고, 환상처럼만 보였던 기술이 갑자기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컴퓨터를 모르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는 우리 삶의 곳곳에 깊숙이 뿌리 내려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최근 들어 속기 또한 컴퓨터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속기와 컴퓨터의 접목을 시도해온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컴퓨터는 기억력 하나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속기를 컴퓨터에 연결시켜 나갈 때에는 기억부분은 전부 컴퓨터에 맡기고 사람은 입력방법을 숙달만하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이 암기해야 할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무언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수필속기에서 외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나, 컴퓨터를 활용하면서도 외워야 할 것이 많다거나 학습기간도 줄이지 못하고 단지 번문시간만을 단축시키는데 만족해야 한다면 이는 컴퓨터의 장점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속기를 컴퓨터에 접목시킬 때 하드웨어적인 변화로만 접목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약어를 등록시키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든지 또는 별도의 속기입력용 기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등의 문제는 스피드워드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적용하게 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즉, 스피드워드는 일반 워드프로세서나 게임 프로그램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에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문제점들을 간단히 해결해 준다.

일반자판의 방식이 두벌식과 세벌식이 있다면, 스피드워드는 두벌식과 한글 스피드 방식, 다시 말하면 세벌식 대신에 한글 스피드 방식으로 바꿨을 뿐이다. 두벌식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두벌식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한글 스피드 방식으로 속기 혹은 뉴스 등의 문자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자 방송하는 스피드워드

스피드워드는 통신이 가능한 에뮬레이터가 따로 있어 뉴스 현장중계, 세미나 현장생중계, 사건·사고현장 및 스포츠 생중계 등을 할 수가 있다.

PC통신 천리안에서 GO RIMAS를 치면 리마스문자속보가 나온다.

YTN뉴스란에서는 매일 10시, 12시, 16시 YIN뉴스를 문자로 생중계하고 있다.

그 동안 스피드워드는 1년8개월의 짧은 시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속보방송, 한일 슈퍼야구 6차전 전 경기 문자 생중계, 강택민 중국 주식 국회연설문 생중계, 엘빈 토플러 초청강연회 생중계, 전두환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속보방송, 네그로폰테 교수 초청강연회 생중계 등을 완벽하게 문자방송함으로써 PC통신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다.

노트북에 스피드워드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현장 뉴스 등을 생중계하고 현장에서 프린팅하거나 파일을 전송하여 각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신속하게 뉴스로 내보낼 수 있는 새로운 방송매체로 등장하여 스피드워드의 사용영역이 점차 확대일로에 있다.

이처럼 스피드워드가 뉴스의 중계를 비롯하여 스포츠의 생중계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은 가급적 약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 생중계를 할 때도 접미사 몇 개정도만 약어로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외워야 할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한 타에 한 자를 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1분에 320자 정도 입력이 가능하다.

국회·법원과 같은 특정분야의 업무에서는 빈번히 사용되는 특수용어를 약어로 사용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글 스피드 방식

속기의 생명은 물론 빠른 속도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속기를 익히는 과정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글 스피드 방식 타이핑은 기존의 일반 컴퓨터 키보드에서의 두벌식 자판의 문자배열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새로이 자판을 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단지 입력하는 동작의 숙달만이 필요할 뿐이다.

즉, 한 타에 한 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건반 누르듯 해당자판을 동시에 치면 된다.

그리고 약어는 모든 것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맡겨 두었다. 만약 한 타가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되게 하려면 일반 텍스트파일을 사용자가 만들어 등록한 후 약어로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약어의 등록방법 역시 매우 간단하며 컴퓨터용량 만큼 원하는 대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영문 속기도 물론 가능하다. 워드프로세서 기능은 □글 2.5정도 수준의 편집 및 프린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글 2.5를 사용할 줄 알면 따로 편집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글자 폰트가 다양하며 글자 확대시 비트맵 방식이 아니고 벡터 폰트방식이므로 글

자체가 예쁘고 수려하여 고급문서를 만드는 데에도 손색이 없다.

■스피드워드의 속달기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 키를 동시에 누르느냐 하는 문제가 스피드워드 속달의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타자 3급 정도의 실력이면 3~4개월만 연습해도 최소 1분에 250~300자 정도의 속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타이핑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1개월 만에 250자의 속도를 내고 있는 사람을 여러명 보았다.

설령 320자 정도의 속도가 오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일반 문서작성에 활용하거나 빠른 속도의 컴퓨터통신이 가능하므로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이 스피드워드의 장점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빨리 칠 수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전문속기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문속기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전문지식이 겸비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전문속기사가 스피드워드를 익힌다면 이는 황금날개를 단 것과 같은 효과를 보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국회 속기에서도 스피드워드 활용

참고로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구성되는 제15대 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현재 국회 속기과에서는 제1단계로 20인을 선발하여 약 3개월 예정으로 스피드워드를 이용한 교육훈련 중에 있다.

한편 스피드워드는 앞으로 편집기능을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워드프로세서 기능 하나만으로도 어느 워드에도 뒤지지 않게끔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스피드워드는 한정된 분야 안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매체 및 영상시대에 부응하여 영상문자 방송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새로운 통신매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신기술개발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속기인은 물론 일반 컴퓨터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정상모 : (주)경영소프트 대표이사

(주)한국문자방송 전무이사

속기사와 컴퓨터

윤 태 원(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우리는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있다. 없어서는 안될, 철저히 그것들에 의해 길들여져 그것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친다.

전기가 그렇고, 수도물이 그렇고, TV가 그렇고, 자동차가 그렇다. 그리고 내게는 컴퓨터가 그렇다.

지난 여름 어느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던 날 번개가 컴퓨터를 강타했다. 물론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외부와 연결된 모뎀과 TV수신카드가 있었다. 모뎀은 통신을 하기 위해 항상 전화선이 물려져 있었고, TV수신카드는 TV를 보기 위해 옥상 안테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원래 번개치는 날은 외부와 연결된 이러한 선들을 모두 뽑아 두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번개가 전화를 타고 모니터와 모뎀을 작살내 버렸다. 모니터를 수리하는 데 근 1주일이 걸렸고 모뎀을 수리하는 데는 2주일이 걸렸다. 그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다.

별로 컴퓨터로 할 일이 없어도 컴퓨터를 켜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하이텔에 들어갔다, 나우누리에 들어갔다 하다못해 오락이라도 해야만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아마 단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다.

우리는 흔히 사무자동화니, 전산화니 하는 말들을 자주 한다. 그런데 이 사무자동화가 단순히 워드프로세서만 사용할 줄 알면 사무자동화가 된 듯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할 때 타이핑을 빨리하고 파일을 카피하고 디스켓을 포맷만 할 줄 알아도 그 사람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처럼 인식된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아직 그에 따른 주변장치라든가 프로그램은 보급되지 않고 있다.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 중에는 CD-ROM으로 제작되어 나오는 것이 많은데 아직 공공기관에서 사

용하는 컴퓨터에는 이 CD-ROM을 읽을 수 있는 드라이브를 장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번은 사무실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용량이 커서 CD-ROM에 담겨져 있었다. 그런데 컴퓨터에는 CD-ROM드라이브가 없어서 컴퓨터 본체를 들고 컴퓨터 판매업체를 찾아가 본체를 분해한 뒤 하드디스크를 다른 CD-ROM드라이브가 있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설치한 적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구입에 인색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회사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깔아 주기만 기다린다. 전산실을 제외하고 어느 관공서를 보더라도 프로그램 구입비가 별도로 책정된 곳은 거의 없다. 단순히 하나위드를 치는 데만 그치고, 그것도 컴퓨터를 납품한 업체에서 깔아 준 것들이다.

요즘 설치되는 컴퓨터를 보면 펜티엄75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 성능 좋은 컴퓨터에 하나위드 하나만을 사용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위드는 XT에도 문제없이 돌아간다. 아니면 컬러화면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385만 해도 충분하다.

나는 그래도 가끔 주머니 돈을 털어 프로그램을 사기도 한다. 주로 사는 것이 아래아 한글과 글꼴들이다.

아래아 한글은 2.0버전을 사무실에서 27만원을 들여 사 주었다. 그 후 업그레이드는 내 돈으로 직접 했다. 그 업그레이드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다. 2.1, 2.5, 3.0, 윈도우즈용 3.0b까지. 그리고 아래아한글 자매품인 여러 프로그램도 몇 가지 샀다.

그리고 내가 가장 관심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글꼴이다. 현재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아래아 한글 3.0b(윈도우즈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은 한글 글꼴만 150여 가지가 된다. 그래도 이것 역시 부족하여 더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글꼴들은 아래아 한글에서 제공하는 확장 글꼴과 통신에서 구한 공개용 글꼴, 그리고 돈을 주고 산 글꼴들이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컴퓨터업체에서 불법으로 깔아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우리나라의 전산화를 늦추게 한 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91년도에 처음 컴퓨터를 접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무실에서는 AT286을 사용했고, 집에서는 전설적인 XT를 사용했었다. 그러다가 사무실에서는 386으로 바꾸었고, 집에는 XT를 개조하여 AT로 바꾸었다. 그러던 중 486이 등장하자 두대 다 486으로 바꾸었다. 사무실의 컴퓨터는 특별한 주변장치를 장착하지 못하고 그저 프린터만 달려 있을 뿐이다. 그

러나 집의 컴퓨터는 사운드카드와 CD-ROM드라이브, TV수신카드, 모뎀을 달았다.

지난 10월에 사무실 컴퓨터에도 내가 뽀뽀 우겨 이제는 정보화 시대니 각종 정보를 얻으려면 PC통신을 해야 한다면서 하이텔의 '국회큰마당'의 메뉴를 갈무리하여 로비를 한 결과 고속모뎀 하나와 하이텔 사용권을 얻어 냈다.

타 의회나 타 사무실에 가보면 컴퓨터에 모뎀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본다. 몇년 전 정부의 전산화 추진과 맞물려 누구도 사용할 줄 모르면서 모뎀만 덩그러니, 그것도 값이 더 비싼 외장형 모뎀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하는 사무실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내만에는 제대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모뎀 하나로 팩스와 뽀뽀호출, PC통신을 한다.

물론 사무실에는 팩스가 한 대 있다. 그러나 여러 군데 팩스를 전송할 경우, 팩스 앞에 수십 분간 기다리고 서서 일일이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를 바로 모뎀을 통해 여러 군데 번호만 지정해 주면 바로 전송해 준다. 통화 중이면 다른 곳에 먼저 보내고, 윈도우즈 상에서 돌아가므로 통신을 하면서 워드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직원, 의원, 사무실 출입 A/S맨들의 연락처와 뽀뽀번호를 기입해 두고 마우스로 누르기만 하면 뽀뽀 호출을 해준다.

하이텔과 나우누리를 이용하여 최신정보를 얻기도 한다. 컴퓨터를 통해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국회의 의사일정을 알아보며,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검색한다. 그리고 각종 자격시험, 속기검정시험 일정도 PC통신을 통해 알아 보았다.

집의 컴퓨터에도 모뎀이 설치되어 있으니 집에서든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사무실 일이 바쁠 때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의 집으로 팩스를 보내면 그것을 받아 처리하기도 한다. 결국 집에 팩스를 구입한 결과가 된다.

PC통신을 하고부터 나는 국회와 연결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에서도 국회 일정을 알아야 할 때가 많다. 또는 회의진행에 관해 의문이 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어김없이 PC통신을 통해 국회 자료를 검색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국회에다 전화를 한다. 특히 회의진행에 대해 속기과의 시원스런 해답을 많이 들었다.

현재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개설된 '국회큰마당'이 조금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회의록도 게재가 되고,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들

도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많은 지방의회에서 앞다투어 PC통신을 하고자 할 것이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한다면 PC통신을 권하고 싶다. 물론 전화요금은 좀 들지만 그래도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지난번 하이텔을 통해 온라인 낚시대회를 한 적이 있었다. 시간대별로 가장 큰 고기를 잡은 사람과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사람, 그리고 그날 가장 큰 고기와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전화선을 타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이었다. 나는 이때 상품에 눈이 어두워 새벽 2시에 일어나 무려 2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낚시를 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인 뒤 또다시 서너 시간을 낚시에 매달렸다. 그 결과 T셔츠 2개를 상품으로 타는 영광은 안았지만 전화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되었다.

통신을 하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다. 거의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록되는데, 이들 중 286컴퓨터를 386으로도 만들고 386컴퓨터도 486, 586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 간혹 워드프로세서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면 갑자기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면서 "어떻게 컴퓨터를 이렇게 잘 만지느냐"는 소리를 한다. 그 덕분에 여러 군데 불려다니는 A/S맨이 되기도 했다.

지난 겨울에는 멀티카드를 만들어 모뎀을 통해 친한 선배에게 보냈다. 이 멀티카드는 나우누리를 뒤져서 찾은 프로그램인데, 그림을 배경으로 하여 음악을 들으며 편지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은 선배의 사진을 스캔받아 포토샵으로 다른 그림과 합성하였고, 음악은 하이텔을 뒤져 모래시계의 테마곡을 넣었다. 그리고는 압축하여 하이텔을 통해 전송했다. 그것을 받아 본 선배가 무척 좋아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신 선배님께서 하이텔을 통해 연하장을 보내 주셨다.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글이 어울어져 어느 값비싼 연하장보다도 더 나를 감격시켰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멀티카드를 보내야겠다.

여러 사람에게 PC통신을 하라 하면 "나는 컴퓨터를 모르는데 통신을 어떻게 할 수 있나"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전자공학을 배울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PC통신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배울 필요는 없다. 내게 필요한 분야만 TV에서 켜고, 끄고, 채널 맞추고, 볼륨 조정하고 하듯이 PC통신도 통신

망에 들어가고 정보를 검색하고 대화방에 들어가 수다를 떨고, 내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운로드하면 되는 것이다.

컴퓨터를 재미있게 꾸며 놓으면 작업하는 즐거움이 있다.

속기한 것을 번문할 때 워드프로세서로 한다 하더라도 방대한 양일 경우 지루함과 피곤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때 컴퓨터를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 놓고 작업하면 한결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컴퓨터를 켤 때마다 아름다운 시(詩)가 화면을 꾸미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이, 혹은 나의 좌우명을 그림과 함께 만들어 두기도 한다. 프롭트를 컬러로 만들어 두고, 나만의 프로그램에는 누구도 실행할 수 없도록 실행파일에 보디가드를 붙여 놓는다.

또한 덧실행이라는 기능이 있는 워드프로세서에는 바이오리듬이라든가, 일일 운세, 사다리 타기 등 잠시 휴식을 할 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화면보호기는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들어가면 많이 있는데 지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아래아 한글의 화면보호기로 '산타' 화면보호기를 심어두었다. 자판에서 손을 떼고 3분이 지나면 검은 화면에 둥근달이 떠 있고, 하얀 눈이 내리며 산타가 썰매를 끌고 화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즈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더욱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윈도우즈의 배경화면을 내 사랑하는 이의 모습,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가득 채우고, 잠시 컴퓨터를 만지지 않을 때 실행되는 화면보호기도 움직이는 그래픽이 뛰어난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혹은 문자로 "현재 속기 작업 중이니 손대지 마세요!"라고 써 놓으면 검은 화면에 색깔 있는 글씨가 화면에 돌아 다닌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이 글귀를 보고 컴퓨터를 안 만진다.

나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컴퓨터를 재미있게 꾸미려고 노력한다. 집에서 워드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주로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를 많이 사용한다. 워드 작업을 하다가 통신도 하고, 또 TV를 시청한다. 또는 CD로 음악을 들으면서 워드 작업을 하기도 한다. 정말 문서 편집이 재미있게 느껴진다.

94년도를 거쳐 95년도 정식 발족한 대구경북속기사회 행사 때에도 컴퓨터에 관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다.

대구경북속기사회는 현재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30인의 속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95년 10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국회사무처의 이주성 회원부장님과 대한속기협회 연구위원회 김점동 간사님을 모시고 회의록 전산화와 관련하여 문자인식과 속기록 번문시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띤 강의도 있었다. 그후 컴퓨터의 위력을 새삼 실감한 대구의 속기사들이 자체 컴퓨터 교육을 하자는 의견과 앞으로는 더욱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요청이 쇄도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분 할 작업을 삼사분에 끝낼 수 있으니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리고 대구경북속기사회에서는 96년도에 하이텔이나 아니면 다른 통신망을 통해 가칭 「속기동호회」라는 PC통신 동호회를 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형통신망에는 사용자 번호를 가진 사람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름 없는 통신망의 경우도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속기동호회는 대구경북속기사회의 회원들로만은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속기사들 중 통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만약 이 속기동호회가 결성이 된다면 정말 많은 정보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속기에 관해, 회의에 관해, 그리고 서로 유대도 강화할 수 있으며, 서로의 의견도 교환하고, 회의록을 게시판에 올려 제주에서 서울까지 단 몇 초만에 바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내 전화요금으로 서울에, 제주도에, 강원도에, 그리고 대구에 있는 속기사와 대화방에서 만나 문자로 대화하는 정겨움도 느낄 수 있다.

이 계획은 96년도에 안 되면 그 다음해에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컴퓨터가 없더라도 단말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누구든지 관심만 있다면 쉽게 결성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것 말고 좀더 큰 욕심을 낸다면 자체 사설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구에도 사설 통신망이 많이 있다. 더러는 집에서 486컴퓨터로 하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는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통해 광고하고 싶은 것은 전국 어디에 살든 속기동호회를 결성하고자 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어 주실 분은 하이텔 sk9549, junggua 천리안 yuntw, 나우누리 w6002213으로 편지를 주시거나 대구경북의 속기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배우고 노력하는 속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애인 만들기

강 지 유(속기2과)

이제서야 고백이지만 나에겐 오래된 애인이 있다.

내 애인은 병어리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부드럽고 멧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를 줄 알고 여자인 나보다도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하며 나를 편안히 쉬게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애인이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달려가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침묵으로 일깨워주기도 하고 때론 힘든 좌절과 지칠대로 지친 마음을 끌고 찾아가면 아무 말없이 두 팔을 벌려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찾아가면 함께 춤을 춰 날 기쁘게 해주기도 한다. 어릴 적(?) 내 남자 친구보다도 이해심 많고, 언제나 자상한 마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을 애인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철이 들고부터인가…… 나는 바다를 좋아해 버렸다! 바다는 내가 사랑하는 병어리이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태어나서 여지껏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지만(우째 이런 일이……) 남쪽 끝 작은 항구도시 목포, 가수 이난영이 애절하게 불렀던 '목포의 눈물'이 어려있는 그 곳에서 태어나 나의 코흘리개 소녀시절(우와 ~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소녀!)을 보냈기 때문에 행여 아직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인이 아닌 외계에 사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것처럼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바다는 늘 내 곁에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바다는 나의 관심 밖이었다.

내 나이 열아홉,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광주에서 제2의 소녀시절을 보내면서 나 혼자서 가꾸어가는 시간들은 비로소 나를 『나』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스무살의 사랑과 꿈과 그리고 사연 많은 우정들이 나의 싱그럽고 꽃다운 20대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그렇다고 지금 내가 꽃다운 20대가 아니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 이젠 내 인생에 있어 아주 소중한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광주는 나의 학창시절의 꿈과 추억이 물들어 있는 제2의 고향이겠지. 아

마도 내가 바다를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내 작은 꿈들,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운 얼굴, 헤어짐으로 사랑을 하고 만 사람까지도 모두 바다로 가면 만날 수가 있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해운대에서도 채석강의 거친 파도속에도…… 바다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바다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바닷속에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바다 한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선장이 되어 항해를 시작했다. 서울은 나의 바다다! 이제 나의 바다는 이 곳 서울이며 나는 과감하게 그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벌써 작년이란 이름으로 넘어간 지난 여름 8월, 속기과거시험 보러 한양 올라온 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하늘은 준비없이 소나기를 마구 퍼부었다. "아 시험 하루 앞두고 웬 물벼락이람……" 친구와 난 예감이 심상치가 않았다. 물에 빠진 새앙쥐 꼴(하지만 구여웠을 쥘?)을 하고서 시험장 소인 윤중중학교를 찾아 여의도를 헤매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나, 그러나 나를 지켜주는 신(神=?)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서울까지 따라와서 내게 길을 열어 주었다. 한 아주머니를 만난 것이다. 우연히. 윤중중학교 앞에서. 그것도 국회 도서관에서 일하신다는. 알고보니 고향이 광주인 아주머니를. 또 알고보니 다음날 내가 볼 시험을 위해 책상정리를 하러 나오셨다네. 또 알고보니 1시간 전에 일을 끝내고 가시려다 갑자기 내리는 비때문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네. 그리고는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 내가 비가 멈추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가씨 만나려고 비가 왔나 보라며 선뜻 당신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 같이 나오자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정말 우째 이런 일이 우연일 수가 있겠는가! 힘들기만 했던 여의도 한복판에서의 방황은 아주머니를 만난 그 순간부터 시험을 보고 내려갈 때까지 순탄하게 풀려갔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아주머니께선 내가 시험에 꼭 합격할 줄 알고 계셨더라. 그날 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구렁이 한마리가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와 당신 몸을 칭칭 감는 꿈을 꾸셨단다. 이 글을 빌려 국회 도서관 세왕실에서 근무하시는 안부자 아주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서울에서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나의 애인을 만났다. 서울이라는 넓고 큰 바다를……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어,마침내 내가 찾아 온 바다는 바로 이곳이기에 이제 막 서울살이를 시작한 나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따라 묵묵히 파도를 가를 뿐이다. ♪~

나의 친구

김 권 중(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전구(戰具)들을 준비하는 시간은 신경이 잔뜩 쓰이지만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다. 전구의 기본인 칼은 대부분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어른 팔뚝 두께 정도의 소나무 가지를 잘라 칼모양으로 다듬어서 오줌통에 담귀 십수 일이 지난 것을 쓰는 경우도 있다. 소나무 등 물기가 많은 나무는 마르면서 금이 가는 속성이 있어 오줌통에 담귀 두면 오줌 속에 있는 성분이 그 금 속에 스며들어 단단해 진다는 얘기를 어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쉬 금이 가지 않는다. 참 신기한 일이다. 어찌면 이것은 바둑판을 만들다가 금이 가면 그 금간 틈에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형겅으로 그 부위를 싸는 것과 같은 원리리라. 그리고 황토(黃土)는 폭탄이 된다. 흙이 부드러워서 서로 그것을 던져 설혹 황토가 살갓에 맞더라도 상처가 나지 않고, 그 특유의 붉은 색으로 인해 죽었다(戰死)는 표시가 쉽게 나기에 술방울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이것 또한 지금 직장과 젊은이들 사이에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많이 하는 서바이벌 게임의 총알에 빨간색 페인트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리라.

모든 전구가 준비되면 모여든 동네 아이들끼리 편을 갈라 꼭 어머니님 젖가슴같이 내려앉은 산들을 헤집고 다니며 정신없이 전쟁놀이에 열중한다. 이렇게 한참을 산야를 헤집고 다닐 때 언제나 나무, 돌, 풀들은 나를 숨겨주는 은폐물이며... 같이 숨쉬고, 같이 놀이를 즐기는 친구였다. 그러다가 배고프면 열매와 뿌리를 아무 조건없이 주는 그런 친구였다.

무엇에 쫓기듯 그곳을 떠나 온 지가 십여 년이 되어 가건만 쉽사리 다시 찾지 못하는 것은 그 녀석을 잊고 살아가야 하는 도시생활의 쪼들림 때문이리라.

'도(島)'자가 붙어도 '섬'임을 느낄 수 없는 고향으로 들어섰다.

탁트인 푸른 바다, 코 끝에 와 닿는 비린내.

정신이 맑아온다.

'그래, 이런 기분때문에 여길 오는구나' 마치 완전한 도시인이 돼 버린 듯한 착각으로 조바심을 내며 차창 밖으로 추억들을 분주히 확인한다. 전쟁 놀이를 위해 황토평탄을 만들었던 황토밭-우리들은 황토가 많이 있는 곳을 그렇게 불렀다-은산허리를 돌아가는 아스팔트 길의 낙석(落石)보호벽에 묻혀 버렸고, 곳곳에 있는 개발의 흔적들은 흑백TV에서 본 기억이 나는 꼬맹이들의 머리 부스럼같이 보기가 흉하고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젠 시골에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 못지 않게 향락시설들이 들어서 있었고, 어릴적 생활했던 아련한 기억들과는 사뭇 판판이었다.

급속한 산업화는 편리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대가로 언제나 그대로일 것 같았던 친구를 병들게 했다. 어쩌면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어야 했던 내가 친구의 병듦에 방관자-아니, 주모자였었다. 비근한 예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지자 그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일, 이상 기후로 인한 두려움,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는 녹지공간과 산림들, 골프장 개발, 도로건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편리, 결국은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풍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나의 친구를 병들게 했었다. '이이불이(二而不二)'라는 말처럼 자연과 사람은 둘이지만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까닭에, 자연을 훼손시킴으로써 얻은 풍요가 결코 지난날의 풍요보다 나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사 느낀다.

내가 지금 어린 시절 뛰어다니며 놀았던 그 산야를 그리워하는 것은 비단 추억에 젖어서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 느낄 수 있었던 그 친구의 넉넉함과 상처받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당당함이 다시금 그리워지기 때문이리라.

한글바로쓰기

[한글맞춤법 중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만 발췌하여 신고자 한다.(편집자)]

■맞춤법

한글맞춤법 중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만 발췌하여 신고자 한다.(편집자)

1.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깎다 깎으니 / 옳고 옳아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이리로 오시오(0) 이리로 오시요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2.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 좋지 좋지요
* '-오'는 상대높임법의 하오체에 쓰이는 종결 어미이고 '요'는 다른 어미와 결합해서 '단정, 의문, 감탄, 명령, 청유'의 종결 어미를 만드는 서술적 조사이다. 따라서 '-오'와 '-요'는 엄격히 다른 기능을 갖는다.
3.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드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것은/그건 그것으로/그걸로 나는/난
4.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으)르 거나(0) / -(으)르 꺼나
- (으)르 곁(0) / -(으)르 꺾
- (으)르 계(0) / -(으)르 께
- (으)르 지언정(0) / -(으)르 찌언정
5.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몹시 춥더라 (0) / 몹시 춥드라
말 잘 하던데!(0) / 말 잘하드는데!
나.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배든지 사과든지(0) / 배던지 사과던지

가든지 오든지(0) / 가던지 오던지

6.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그러므로(그러니까) :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그렇게 하는 것으로) :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써) 은혜에 보답한다.

(으)므로 :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고, -음)으로써(조사) : 그는 믿음으로써(써) 산 보람을 느꼈다.

이따가 :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 돈은 있다가도 없다.

- (으)러 (목적) : 공부하러 간다.

- (으)러 (의도) : 서울 가러 한다.

7. 띄어쓰기

①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에서부터 꽃이나마 멀리는 웃고만

②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먹을 만큼 먹어라. 이는 이를 만났다.

네가 말한 바를 알겠다.

③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사라, 배 등속 열 내지 스물

④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첫 번째. 차 한 대. 금 서 돈

*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1446년 10월 9일 2대대

⑤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를 띄어 쓴다.

12억 3,456만 7,890

⑥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 곳 / 그 때 그 곳

좀더 큰 것 / 좀 더 큰 것

⑦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깨뜨려 버렸다. / 깨뜨려버렸다.

- *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덤벼들다)

잘난 체를 한다. ('를'은 조사)

- ⑧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서화담,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충무공 이순신 장군

- ⑨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대한 중학교 /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⑩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 중거리탄도유도탄

■문장부호

1. 마침표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 ①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 ②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3.1.

- ③ 표시문자 다음에 쓴다.

가. 준말

- ④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2.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 *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 *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을 쓸 수 있다.

이 일을 도대체 어쩔단 말이나.

이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라면 모를까.

3. 가운데점 (·)

①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공주·논산, 천안·아산 등 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다.

② 특정한 의미를 지닌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운동 8·15광복

③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서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4. 쉼표(,)

①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③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닭과 지네, 고양이와 개

④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⑤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⑥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애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⑦ 제시어 다음에 쓴다.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⑧ 도치된 문장에 쓴다.

이리오세요, 어머니

⑨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

아, 깜빡 잊었구나.

⑩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리고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⑪ 문장 중간에 끼여든 구절 앞뒤로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구절 앞뒤에 쓴다

- ⑫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 ⑬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 ⑭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

1,2,3,4

- ⑮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 쓴다.

5,6 세기 6,7 개

■표준어 원칙

1.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0)/돛 둘째(0)/두째 셋째(0)/세째 넷째(0)/네째

- *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라고 한다.

열두째

2.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괴팍하다(0)/괴팍하다 -구먼(0)/구먼 미루나무(0)/미류나무 여느(0)/여
니 으레(0)/으레 케케묵다(0)/케케묵다

3. 다음 단어에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구려(0)/-구료 각쟁이(0)/각정이 나무라다(0)/나무래다 바라다(0)/바
래다 지루하다(0)/지리하다

4.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지(0) / -든 -든가, -든걸, -든고,
-든데, 든지

- * 회상이나 동작 완결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던'으로 통일한다.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이다.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으)려고(0)/-(으)르 려고, -(으)르 라고, 뛰려고(0)/뿔려고 하려고
(0)/할려고

-(으)려야(0)/-(으)르 려야, -(으)르 래야, 막으려야(0)/막을려야 그려
려야(0)/그릴래야

-올시다(0)/-올습니다.

5. 다음 단어는 두 형태를 모두 허용한다.

네/예 쇠-/소- 꺾다/고이다 꺾다/꼬이다 썩다/썩이다 죄다/조이다 죄다/쪼이다

6.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계꿈(0)/-계꿈 안절부절못하다(0)/안절부절하다 -지만(0)/-지만서도

7.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뜨리다/-트리다 모쪼록/아무쪼록 -(으)세요/-(으)셔요 -이에요/-이어요 아무튼, 어쨌든/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8.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평(0)/숫평 수놈(0)/숫놈

■해설

1. 사이시옷 표기 원칙의 정리

①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선 다음의 6개만이 인정된다.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

② 그 외의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꿇밥 전셋집 아랫니 양칫물 뒷일

2. '대'와 '데'의 구분

(1) '대'

① '-대'(값의 뜻)

청소대 식대

② '-대'('-다 하여'의 뜻을 지닌 선어말 의미)

"어제 갔대요 내일 도착한대요?"

③ '-ㄴ대'('-ㄴ다고 한다'의 준말)

내일 연락한대

④ '(일)진대'(체언에 붙어 '일 것 같으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형 서술격조사

그도 사람일진대 어찌 그럴까

⑤ '-(하)건대'(앞으로 하려는 일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원하건대 원컨대 요하건대 예컨대

(2) '데'

① '데'(경우, 일의 뜻을 지닌 의존명사)

갈 데가 없다, 노는 데엔 빠지지 않는다

② '그런데'

③ '(이)데'(지난 일을 회상하거나 묻는 종결형 서술격 조사)

그는 아직도 학생이데?

④ '-는데'(다음 말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사실을 먼저 지적하는 연결어미 또는 종결어미)

키는 큰데 힘이 없다

⑤ '-(이)던데'(다음 말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일을 회상하는 연결어미 또는 종결어미)

불편한 것 같던데 지금은 어때

3. 복합어

복합어란?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하나로 굳어진 것으로서 붙여 씀.

문제점 : 우리말의 특징-합성에 의한 조어가 발달. 어떤 단어들 이 복합어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는 데 혼란을 많이 주게 된다. (복합어 찾는 방법 : 대개 사전에 '-'로 연결되거나 또는 그냥 한 단어로 실려 있음.)

예 : 아들딸. 해보다. 해주다. 들어-가다. 그만두다. 마음놓다. 마음먹다. 못마땅하다. 보다못해. 사이좋다. 숨넘어가다. 알은체하다. 여봐란듯이. 예의바르다. 어린이날. 오랫동안. 작은형. 정떨어지다. 제각기. 제자리. 주고받다. 큰딸. 큰댁. 큰물. 큰비. 큰아버지. 한없다

▶가다(다니다) : 걸어가다. 내려가다. 넘어가다. 달려가다. 돌아가다. 살아가다. 흘러가다. 따라가다(따라다니다). 지나가다(지나다니다). 쫓아가다(쫓아다니다). 날아가다(날아다니다).

▶나가다 : 걸어나가다. 기어나가다. 달려나가다. 살아나가다. 해나가다.

▶나다 : 깨어나다. 걸론나다. 솟아나다. 일어나다. 풀려나다.

▶나오다 : 걸어나오다. 살아나오다. 되돌아나오다. 뛰어나오다. 흘러나오다.

▶내다 : 가려내다. 긁어내다. 끌어내다. 도려내다. 밝혀내다. 알아내다. 쫓아내다. 찾아내다. 토해내다.

▶내리다 : 깎아내리다. 뛰어내리다. 흘러내리다.

▶넣다 : 집어넣다. 퍼넣다.

- ▶ 놓다 : 내놓다. 내려놓다. 늘어놓다. 덮어놓다.
 - ▶ 당기다 :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 ▶ 당하다 : 결박당하다. 핏박당하다.
 - ▶ 되다 : 결정되다. 고급화되다. 대중화되다. 당선되다. 결정되다. 복되다.
 - ▶ 들다 : 끼어들다. 달려들다. 모여들다. 접어들다. 줄어들다. 파고들다.
 - ▶ 들어가(오)다 : 달려들어가(오)다. 끌려들어가(오)다. 흘러들어가(오)다.
 - ▶ 들이다 : 거두어들이다. 받아들이다. 불러들이다. 잡아들이다.
 - ▶ 모으다 : 불러모으다. 쓸어모으다
 - ▶ 받다 : 버림받다. 오해받다.
 - ▶ 보다 : 내다보다. 내려다보다. 뒤돌아보다. 들여다보다. 미루어보다.
살펴보다. 알아보다. 올려다보다.
 - ▶ 붙다 : 달(말)라붙다. 들러붙다. 얼어붙다.
 - ▶ 삼다 : 문제삼다. 참고삼다. 표준삼다.
 - ▶ 삼키다 : 집어삼키다. 주워삼키다.
 - ▶ 서다 : 갈라서다. 늘어서다. 올라서다.
 - ▶ 안다 : 끌어안다. 부둥켜안다.
 - ▶ 없다: 간데없다. 거리낌없다. 거침없다. 그지없다. 끊임없다. 끝없다.
남김없다. 느닷없다. 다름없다. 두말없다. 두서없다. 멋없다. 면목없다.
밑도끝도없다. 말없다. 밤낮없다. 빠짐없다. 버릇없다. 변함없다.
별수없다. 보잘것없다. 부질없다. 사정없다. 상관없다. 숨김없다. 쓸
모없다. 쓸데없다. 아랑곳없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염치없다.
온데간데없다. 이유없다. 자신없다. 터무니없다. 틀림없다. 형편없다.
- ☞ 잠깐! 띄어 쓸 때도 있지요.
- ① 앞에 꾸미는 말이 올 때 : 아무 쓸데 없는, 별 이유 없는, 말할 나위
없이
 - ② '없다' 앞에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될 때 : 물 없이는 못 산다.
바람 없는 날. 총 없는 군인. 반찬 없이.
- ▶ 았다 : 내려았다. 다가았다. 올라았다.
 - ▶ 오다 : 걸어오다. 내려오다. 되돌아오다. 떠나오다. 살아오다. 지나오
다. 찾아오다.
 - ▶ 오르다 : 기어오르다. 뛰어오르다.
 - ▶ 올리다 : 끌어올리다. 들어올리다.
 - ▶ 워하다 : 고마워하다. 괴로워하다. 두려워하다. 아쉬워하다. 안타까워

하다. 힘겨워하다.

▶ 있다 : 맛있다. 멋있다, 자신있다. 재미있다.

* 귀염성 √ 있는, 생명 √ 있는 것, 기회 √ 있을 때마다

▶ 지다 : ① 그늘지다. 기름지다. 모지다

② 아름다워지다. 앞당겨지다.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가는

* 그러나 (명사+조사)+지다 : '지다'를 띄움 : 그늘이 √ 지다. 숨이 √ 지다

▶ 짓다 : 절정짓다. 관련짓다. 단정짓다.

▶ 치우다 : 걷어치우다. 먹어치우다. 집어치우다.

4.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 붙여 씀도 허용.

보조 용언이란? 홀로는 문장의 주체를 서술할 능력이 없어 본 용언 아래에서 그 뜻을 돕는 동사나 형용사를 말한다.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역시 까다롭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그간의 관행을 인정하여 붙여쓰기도 허용하고 있다.

예) 사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 사기가(주어) 올라(본동사) 간다는(보조동사) 것은...

막아낸다(0) 막아 √ 낸다(0)

★ '-해 √ 주다'와 '해주다'

① 말씀해 √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말씀을 √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과 ②는 모두 맞는 띄어쓰기입니다.

왜냐고요? ①은 앞의 본 용언 '말씀하다' 아래에서 그 뜻을 돕는 보조 용언 '주다'가 쓰인 것이고요, ②는 '말씀을'이라는 목적어를 취한 타 동사 '해주다'('하여 주다'의 준말이자 복합어)가 쓰인 것입니다.

②의 '해주다' 앞에는 목적어 '-을, -를'이나 부사어가 쓰이니까 구분하기 쉽겠지요?

예) ① 참고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 주신 대로...

이해해 √ 주시면.

② 보고를 √ 해주세요.

조세감면도 √ 해주고.

새롭게 √ 해주다.

확실히 √ 해주다.

* '주다(드리다)'가 복합어를 만들 때...

보내주다(보내드리다). 들려주다. 알려주다. 보여주다. 써주다. 말씀드리다. 보고드리다.

※ '해'('하여'의 준말)가 복합어를 만들 때...

해나가다. 해내다. 해놓다. 해보다. 해오다.

5. 조사·어미·접미사는 붙이고 의존명사는 띄움

쓰이는 경우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같이, 대로, 데, 듯, 만, 만큼, 바, 밖, 뿐, 지' 등이 그런 것입니다.

★ '대로'

①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대로=조사)

②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로=의존명사)

(1) 마음대로. 그대로. 보고대로

(2) 있는√ 대로. 본√ 대로. 보고드린√ 대로

※ 그런대로(접속 부사), 그러한√ 대로

★ '만큼'

① 이번 사안만큼 중대한 (명사+조사)

② 사안이 큰√ 만큼 (관형사√ 의존명사)

★ '뿐'

① 순전히 먹는 것뿐이다. ('뿐'=조사)

② 그저 먹을√ 뿐이다.('뿐'=의존명사)(체언 밑에는 조사 '뿐'이 쓰이고 용언 밑에는 의존명사 '뿐'이 쓰입니다.)

조사와 의존명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조사(예 : 까지, 나마, 는, 는커녕, 대로, 더러, 라야만, 밖에, 뿐, 마다, 마저, 만큼, 야말로, 에서부터, 에설랑, 인즉슨, 조차, 채로, 처럼, 치고, 커녕, 하고, 한데)는 체언(명사, 대명사)이나 부사 뒤에 이어쓰는 반면 의존명사는 주로 앞에 '-ㄴ, -은, -는, -ㄴ'이 붙은 것(관형사형)의 꾸밈을 받습니다.

★ '지'

① 출범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출범하+ㄴ지 = 어간+어미

②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출범한+지 = 관형형+의존명사

'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또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존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

(1)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 언제이(체언)+ㄴ지(조사)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했(어간)+을지(어미)+도(보조사)

누가 선임될지 발표가 났습니까? ⇒ 선임되(어간)+ㄴ지(어미)

(2) 안√지 오래 됐습니다. 떠난√지가 오래다. 의존명사 '지'는 반드시 'ㄴ' 아래에 쓰임

■ 찾아보기

▶ 가지 [의명] → 띄움. : 여러√가지, 열√가지,

※ 다음에 한해서 붙여 씀 : 각가지. 갖가지. 가지가지.

▶ 간(間) [의명] → 띄움 : 형제√간의 우애. 노사√간에. 문명인√간(문명인들 사이). 이렇든 저렇든√간에. 어떻든지√간에.

※ 년간 - 숫자 다음의 '년간'은 그 말을 한 단어로 하여 붙여 쓴다.(4년간에)

그러나 접미사 '여'가 들어가면 '간'은 띄어 쓴다. (50여√년√간)

※ 가부간 결정을 내자. 금명간에 발표된다. 《여기서 '간'은 접미사》

※ 하여간, 하여간에(부사)

▶ 같다(형용사)→ 띄움

① 서로 다르지 않다 :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②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 : 오는 것√ 같습니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시작될 것√ 같습니다.

③ 가정하여 비교할 때 : 대통령√ 같은 분이. 옛날√ 같으면. 당신√ 같으면.

④ 닮다. ...답다 : 셋별√ 같은 눈. 사람√ 같은 사람.

※ 같이(조사)→ 붙임('처럼'의 뜻이 강하지요)

오늘같이 이런 식이라면 형제같이 느껴지다. 그분같이 강직한 나도 너같이 그런...

▶ 걸 [의명]→ 띄움. '것을'의 준말 : 말씀하신√ 걸로 같음하겠습니다.

※ 종결어미→ 붙임.(거기 같걸. 계속한걸요)

▶ 게→ 띄움. '것이'의 준말 .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 나름 [의명] → 띄움 : 제√ 나름으로는. 생각√ 나름이다.

▶ 나위 [의명] → 띄움 : 더할√ 나위 없다. 두말할√ 나위도 없다

▶ 당-(當) [접두사] → 붙임. : 당위원회. 당회사

▶ -당하다 [접미사]→ 붙임.(명사 아래에서) : 봉변당하다. 무시당하다.

결박당하다.(봉변을√ 당하다. 무시를 당하다)

▶ 동안(명사)→ 띄움. ★그 동안 :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 한동안('한-'은 접두사) ※ 오랫동안(복합어)

▶ 되다

※ '못되다'와 '못√ 되다'

① 못된 놈 : 버릇없이 자라서 되어 먹지 못한 경우에만 붙여 쓴다.

② 500억 정도도 못√ 될 것 같습니다.

※ '안되다'와 '안√ 되다'

매우 안된 말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섭섭하거나 가엾고 애석한 느낌이 있음을 뜻하는 말에만 붙여 쓰고 그 이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 듯

① [의명] → 띄움 : 비가 올√ 듯 말√ 듯하다.

② [부사] → 띄움 : 미친√ 듯이 날뛰다.

③ [어미] → 붙임 : 비가 오듯이 땀을 흘리다

※ ① 의존명사 '듯' 은 '만 듯 마는 듯 말 듯'+ '하다싶다' 등의 말과 함께 쓰임. : 밥을 먹은√ 듯√ 만√ 듯하다 의장님이 곧 올√ 듯√ 싶습니다.

②와 ③은 꼴이 같아서 구분이 어려워 보이는데, ②부사 '듯이'는 '듯하게'라는 뜻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는 구실을 하고 ③의 '듯이'는 어간 바로 밑에 붙어서 그 어간이 뜻하는 내용과 '거의 같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총알이 비오듯이 날아오다. 떡 먹듯이 쉽게 되다.)

▶ 때(명사) : 명사와 만나서 하나의 복합어를 이룬 것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① 아침때, 점심때, 저녁때, 오정때, 자정때, 이맘때, 그맘때, 여느때, 평소때, 보통때...

② 어렸을√ 때, 신라√ 때, 식사√ 때, 다음 회의√ 때, 정했을√ 때, 내일 보고√ 때...

▶ 만 ① [의명]→ 띄움 : 열흘√ 만에 돌아오다. ② (조사)→ 붙임 : 열흘만 기다려라.

※ ①과 ②는 뜻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동안이 얼마 계속되었음을 뜻할 때는 의존명사로 쓰인 경우이고 (ㄱ) 어떤 사물을 단독으로 일컬을 때(빛만 지다), (ㄴ) 비교하여 그와 같은 정도에 미침을 나타낼 때(내 키만 하다)는 조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 망정

① [의명] → 띄움 : 도와 주었기에√ 망정이지. 비가 내리니√ 망정이지 가물이 들 뻔했다.

※ '-니''-기에' 뒤에서 다행히 그러하다는 뜻

② ▶-르망정(조사)→ 붙임 : 옷은 누더기일망정

③ ▶-르망정 [어미] → 붙임 : 나이는 어릴망정

▶ 맨 ① (관사) '온통, 더할 수 없이 가장'의 뜻. : 맨√ 처음. 맨√ 끝. 맨√ 풀지. 맨√ 나중. ② [접두사] '비다(空)의 뜻. → 붙임. : 맨손. 맨주먹, 맨입.

▶ 몇(관사)→ 띄움 : 몇√ 사람. 몇√ 개. 몇√ 해. 몇√ 퍼센트

※ 그러나 다음 말에 한하여 붙여 쓴다.

몇몇 해, 몇십 명, 몇백 개, 몇천 마리, 몇만 키로, 몇십만 장, 몇백만 냥, 몇천만 단어, 몇억 마리, 몇조 개.

▶ 못(부사)→ 띄움 : 못√ 먹는. 못√ 쓰는. 통과를 못√ 시키는. 오늘은 못√ 합니다.

※ 못√ 하다'와 '못하다'

① 저녁에 공부를 못√ 했다.(못=부사)

② 철수는 공부를 못한다.(못한다=타동사)

③ 알지 못하다. 동생만 못하다.(못하다=보조용언) : '하다'가 부정부사 '못'을 취하는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함.(할 수 없었다는 뜻) '잘하다'에 대응되는 '못하다'는 타동사.

예) 영어를 못한다. 그 사람은 일을 잘 못한다.

▶ 바 [의명]→ 띄움 : '방법' 또는 '일'의 뜻 :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다.

※-ㄴ√ 바 [관용구] → 띄움. '하였더니'의 뜻 : 현장에 가 본√ 바 사실과 같다.

▶-받다 [접미사]→붙임.(명사 아래에서) : 오해받다. 곤란받다. 주목받다. (오해를 받다. 곤란을 받다. 주목을 받다)

▶밖(명사)→ 띄움 ① '이외'의 뜻 : 그√ 밖의 사람들 그√ 밖에도 제가 궁금한 것이 ② '바깥'의 뜻 : 의사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

▶밖에(조사)→ 붙임. '뿐'의 뜻. 반드시 뒤에 부정이 따름 : 그것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돈밖에 가진 것이 없다.

※ √수밖에 : 의존명사 '수'+조사 '밖에'. : 확인하는√수밖에 없어요.

같√ 수밖에 없다.

- ▶ 본-(本) : [접두사]→붙임 : 본의원. 본회의. 본집. 본고장. 본학원. 본교.
- ▶ 삼아(복합어)→ 붙임. : 문제삼아. 참고삼아.
- ※ 그러나 앞에 꾸미는 말이 올 때는 띄어야 함. : 큰 문제√삼을 것 없이
- ▶ 속(명사) : 명사와 만나서 하나의 복합어를 이룬 것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 ① 숲속, 품속, 마음속, 뺏속, 뺏속.
 - ② 집√속. 관√속. 산√속. 머리√속(머릿속)
- ▶ 르수룩(접미사)→ 붙임 : 하면 할수록. 알수록
- ▶ 시키다 ①(동사)('하게 하다')→ 띄움 : 인사를 시키다. ② [접미사]→ 붙임.(명사 뒤에 붙어서 '하게 하다') : 인사시키다. 심부름시키면.
- ▶ 아니예요(○) 아니예요(×)
- ▶ 안(명사) : 명사와 만나서 하나의 복합어를 이룬 것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① 품안, 집안(가족이나 가까운 일가) ②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몸√안에는, 닷새√안에 마치다. 이 계획서√안에는
- ▶ 앞(명사) : 명사와 만나서 하나의 복합어를 이룬 것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① 눈앞(눈앞의 이익만 추구, 결과가 눈앞에) ② 이√앞에서, 시청√앞에서, 의장√앞으로
- ▶ 여러(관사)→ 띄움 : 여러√모로. 여러√방면. 여러√해. 여러√사람.
- ※ 여러분('여러 사람'의 존칭)
- ▶ -(이)나마(조사)→ 붙임 : 이것이나마. 몸이나마 성해야지. 그거나마 많았으면.
- ▶ 이야말로(조사)→ 붙임 : 이 사안이야말로. 남북통일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 ▶ 이에요(○) 이에요(×) : 말이에요. 것이에요.
- ▶ -자마자(접미사)→ 되자마자, 하자마자
- ▶ 잘(부사)→ 띄움 : 마음을 잘√써라. 잘√가시오. 잘√쓴 글씨. 그 일은 잘√될거다. 물이 잘√안√나온다.
- ※ '잘나다. 잘생기다. 잘살다'와 '못나다, 못생기다. 못살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 ▶ 적 [의명]→띄움. 사물이 어찌 되었을당시 : 밥먹을√적에, 질의했을√적에, 어릴√적에.

▶ 전(前)(명사) : 명사와 만나서 하나의 복합어를 이룬 것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① 기원전

② 얼마√ 전, 점심√ 전, 개회식√ 전

▶ 전-(前) [접두사] → 붙임. : '노 전대통령, 전 전대통령, 전국방장관

▶ 전(全)(관사) : 명사와 만나서 하나의 복합어를 이룬 것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① 전국민, 전세계, 전방위

② 전√ 인류, 전√ 장병, 전√ 직원

▶ 조차(조사)→ 붙임 : 너조차. 이름조차 못 쓴다. 그조차. 10원조차 없다.

▶ 줄 [의명] → 띄움 : 간√ 줄 알았다. 할√ 줄도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 중(中) [의명] → 띄움 : 운행√ 중에, 경기√ 중에

※그러나 접미사처럼 쓰여, 띄어 쓴다면 말뜻이 다르게 되는 것은 붙여 쓴다. : 무심중, 은연중, 안중, 병중, 부지불식중

▶ 즘 [의명] → 띄움 : 출발할√ 즘해서

※다음에 한하여 붙여 씀 : 이즈음, 그즈음, 요즈음

▶ 치고·치고는·치고서(조사)→ 붙임. 사람치고서, 값싼 물건치고는, 네 생각치고

▶ 커녕(조사)→ 붙임 : 대답은커녕, 알기는커녕, 밥커녕 죽도, 웃기커녕

▶ 르√ 테다·르√ 텐데 [관용구] : 먹을√ 테다. 갈√ 텐데. 귀한 자식일√ 텐데.

▶ 편(명사)→ 띄움 : 자기√ 편. 상대√ 편. 우리√ 편

※윗말과 굳어진 것으로 보고 붙이는 경우 : "이편, 그편, 오른편, 왼편, 건너편, 맞은편

※'한편'이 부사로 쓰일 때→ 붙임. : 한편, 형님 쪽에서는……

cf) 한√ 편에서는 옳다 하고…

▶ 하다 : ①의 존명사 '체, 만, 양 아래에 붙여 씀 : 아는 체하다. 앉아 있기 만하다. 천사인 양하다. 그러나 '체, 만, 양 뒤에 조사가 붙을 때는 띄어 쓴다. : 아는 체도 하지 말아라. 죽은 척을 한다.

② 깨끗이√ 하다. 꾸준히√ 하다. 새롭게√ 하다.

③ 다른 동사를 대용으로 할 때. 곧 점심을 '먹다'를 점심을 '하다'로 쓰는 따위 : 한 잔√ 하다.

- ④ -게 '나 '-로, -으로' 아래에 붙어서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할 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 ⑤ 어떤 구실을 맡고 있다. : 형이 회장√ 하고 아우가 사장√ 한다
- ☆⑥ '-라고 하다'의 꼴로 '-라고 부르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천재라√ 한다.
- ⑦ 어미 '-고' 아래에 붙어서 '그러한 상태이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고'는 생략되기도 함) : 기력도 빠지고√ 서. 그렇다√ 해서. 무능하다√ 해서. 뜨겁다√ 해서.
- ⑧ 인용하는 말 아래에 붙어서 '말하다'의 뜻일 때 : 가난이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 ☆⑨ 앞뒤 글을 연결하는 말 :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
- ⑩ 맑기도√ 하다. 씩씩해야√ 한다. : '맑다. 씩씩하다'가 본용언, '하다'가 보조 용언
- ▶ 한 ①(관사)'하나'의 뜻→ 띄움 : 한√ 사람, 한√ 가지, 두√ 가지, 한√ 개, 한√ 그릇.
- ② [접두사] '같다. 크다. 바르다' 등의 뜻일 경우→ 붙임 : 한가지(同一), 한때, 한길, 한글, 한가운데, 한동안, 한겨울
- ▶ '한번'과 '한√ 번' : '두 번'에 대응되는 '한 번'은 띄어 쓰고, 그 이외의 막연한 '일차, 일단'의 뜻일 경우에는 붙여 씀.
- ① 한 번, 두 번...
- ② 한번 살펴보면. 한번 해보자.
- ▶ 후(명사) : 명사와 만나서 하나의 복합어를 이룬 것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①기원후 ②얼마√ 후, 퇴근√ 후, 정회√ 후에
- ★ 두 개의 부사가 겹친 말→ 붙임. : 곧바로, 곧잘, 더욱더, 더한층, 똑같이, 또다시, 제아무리, 좀더
- ★ 다음 말들은 부사로 보고 모두 붙여 쓴다. : 그런고로, 그런데로, 다름아니라, 덮어놓고, 머지않아, 못지않게, 하다못해, 아나나다를까, 아닌게아니라, 오래간만에 왜냐하면, 이를테면, 적지않이(게), 제멋대로, 하루빨리, 하루바삐, 한시바삐
- ★ '-화' 다음에 '하다' '되다' '시키다'는 붙여 쓴다. : 고급화하다. 민주화하다. 대중화하다. 고급화되다. 민주화되다. 대중화되다. 고급화시키다. 민주화시키다. 대중화시키다.

회원동정 (1995.2.11~1996.3.1)

♣ 승진(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회원)

- 하양배 : 국회도서관 총무과(서기관)(94.9.2)
- 박대성 : 통일외무위 입법조사관(서기관)(95.3.20)
- 채강희 : 속기 1과 편집담당(서기관)(95.3.20)
- 김창진 : 속기 2과(속기사무관)(95.3.20)
- 최황수 : 국회사무처(무이사관)(95.8.1)
- 현병고 : 관리국 시설관리과(서기관)(95.8.1)
- 신세화 : 여성특별위 입법심의관(이사관)(95.10.1)
- 이동일 : 국회사무처 관리관(95.12.31)
- 강종원 : 기록편찬국 자료편찬과장 (부이사관)(96.2.1)
- 황인하 : 국회사무처 (부이사관)(96.2.1)
- 김선필 : 속기 2과 편집담당(서기관)(96.2.1)

♣ 전보(국회사무처 회원)

- 김상기 : 건설위 -> 건설교통위(95.3.3)